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6호
2023년 2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꼭 왔어요~” 남가주 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 ‘성황’



지난 2월 4일 LA 인근의 노워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에 300여 동문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모임은 예년과 달리 낯시간대에 열려 방문객을 꺼려하는 50~60학번 동문들도 다수 참석, 이처럼 성황을 이뤘다. 〈관련기사·화보=14~15면〉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 6월 9~10일 라스베가스 일반 동문들에게도 오픈, 여름 휴가철 호텔 예약 ‘도움’

제 3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오는 6월 9일(금)과 10일(토) 주말 이틀동안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다. 웨스트게이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는 임기를 마치는 16대 노명호(공대 61) 회장단의 결산과 함께 17대 회장에 취임하는 이상강(의대 70) 차기 회장의 공약 발표 및 새 임원진 소

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상강 회장의 뒤를 이을 18대 회장 선출 건이다. 이외에도 회칙개정을 비롯해 관악세대의 영입 및 활성화 등 주요 안건들이 토의된다.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는 산하 27개 지부 회장들과 회원

숫자에 따라 각 지부에 배정된 평의원들이 참가한다. 또한 종신이사(실버 및 골드 이사 등 포함)도 회의에 참가하면 평의원 신분을 갖게 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평의원 회의는 처음으로 일반 동문들에게도 오픈한다. 회의 기간이 여름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6월

이어서 동창회 측은 호텔 객실을 충분히 확보, 라스베가스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동문들에게 실비로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기사=3면〉

‘지진 참사’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성금모금 캠페인, 동문들의 참여 바라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공대 61)가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은다. 이 지역에선 지난 6일(현지시각) 규모 7.8의 강진에 이어 규모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5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최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명호 회장은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때 미국 도움으로 많은 병력을 보내 우리를 도왔다”며 “역사적으로도 한민족과 가까운 형제 사이”라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는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5,000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노 회장은 미주 동창회의 기부금과 함께 미

주 동문들이 성금을 보내오면 유엔 산하기관인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현지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지난해에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은바 있다. 동창회를 통한 성금은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818-321-2214
(이호진·동창회 총무국장)
leeheidi2214@gmail.com

금난새 지휘 평화음악회 ‘디즈니 홀’ 역대급 공연

한국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종섭)와 한미동맹재단, ROTC 동지회 주관으로 6월 28일(수)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평화음악회에 한국의 성남시가 시립교향악단을 파견한다. 신상진(의대 74) 성남시장은 10만여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미국에 보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남가주의 한인밀집지역인 풀러튼과 자매결연도 맺는다.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은 “디즈니 홀 공연은 한국전쟁 70주년과 함께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다”라며 “음악회가 범 커뮤니티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성남시향은 ‘마에스트로’ 금난새(음대 66) 동문이 상임지휘자 겸 예술 총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금 동문은 오케스트라를 7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날 연주회는 미주 한인이민역사상 역대급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 2회 ‘SNUAA 스칼라’ 장학생 모집 10명 대학생에 1만 달러씩, 3월 말까지

미주 동창회가 제 2회 ‘SNUAA 스칼라’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10명의 대학생들에게 1만 달러씩 모두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 동

창회는 올해도 전국의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심사는 학생의 성적과 에세이, 특별활동 등이다. 지원자는 3월말까지 웹사이트(<http://snuaa.org>)를 통해 지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동창회가 배정한 5만 달러와 기부자 이름으로 주는 ‘지명 장학금’ 5만 달러로 지급된다.
▲문의: scholarship@snuaa.org
〈관련기사=10~11면〉

트(<http://snuaa.org>)를 통해 지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동창회가 배정한 5만 달러와 기부자 이름으로 주는 ‘지명 장학금’ 5만 달러로 지급된다.
▲문의: scholarship@snuaa.org
〈관련기사=10~11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제 28대 유홍림 총장 취임 “학과 칸막이 걷고 토론·논쟁하는 교육 구축할 터”

제28대 모교 총장에 유홍림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취임했다. 지난 2월 8일(한국 시각)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홍림 총장은 “규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서울대를 국가와 인류 미래에 공헌하는 학문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취임사에서 “서울대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사회 공헌의 틀과 내용을 선제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대 혁신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다.

유 총장은 먼저 “대학 신입생이 1학년 부터 소속학과의 칸막이에 갇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교문을 나서는 교육의 시효는 끝났다”며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의 학생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며 배우는 ‘서울대 교육’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면에서는 학제간을 넘어 현장과의 융합을 강조했다. “전공의 울타리를 넘는 통합적 연구만으로 부족하다. 서울대의 연구 결과는 현장과의 교류와 현실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기업-정부-대학을 연결하는 산-관-학 연구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기술 주도 창업과 벤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이렇게 혁신한 교육과 연구가 진정한 박애정신의 실천과 연계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불신에서 비롯된 제도와 규제들이 서울대 구성원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 발휘할 수 없게 막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 거버넌스를 구현해 열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현재·조완규·이기준·선우중호·정운찬·성낙인·오

세정 전임 총장을 비롯해 김종섭 총동창회장, 이흥구 전 총리, 송상현 모교 명예교수, 민계식(조선항공61) 전 현대중공업 회장, 성기학(무역 66) 영원무역 회장, 유기홍(국사 77)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태호(사회복지 82) 국회의원 등 외빈과 보직교수, 교직원과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정 전 총장이 유 총장에게 모교 상징열쇠를 전달하고 다양한 연사가 축사를 통해 신입 총장에 바라는 점을 전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유홍림 총장과는 총장님이 사회대 학장으

로 계실 때 문리대동창회와 함께 4·19 민주평화상을 제정한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총동창회에서 무슨 선물을 드

릴까 하다가, 마침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재앙이 닥쳤기에 총동창회에서 10만 달러를 구호 지원금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를 해 박수를 받았다.

“이것이 유홍림 총장님의 취임 축하 겸 우리 서울대인의 가슴 속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김 회장은 “총동창회장으로서 바라는 모교의 인재상은 바로 사회에 공

헌하는 서울대인이다. 앞으로 동문들이 모교와 손잡고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장은 “유홍림 교수는 한마디로 ‘신사’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학자이며, 연구와 교육에 아주 출중하다”며 축하를 건넸다.

정 전 총장은 “지금보다 더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를 어떻게 뽑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확실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전통적 학문과 새로운 학문 사이 균형과 조화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며,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실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와 관악구가 낙성대 벤처밸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가는 서울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재현(자유전공 20) 총학생회장이 축사에 나섰다. 모교 총장 취임식에 학생 대표가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회장은 “총장님의 비전에는 학생이 있다. 서울대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규정이 학생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또 지난해 가을 수해 복구를 위해 재학생과 교직원이 합심했듯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서울대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홍림 총장은 미국 럿거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 모교 정치외교학부에 부임했다. 사회대 학장, 기록관장, 대학신문사 주간, 법인화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월 1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유홍림 모교 신입총장. 서울대를 국가와 인류 미래에 공헌하는 학문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사회공헌 인재 길러 주길”
김종섭 총동창회장 당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학자”
정운찬 전 총장 덕담



유홍림 총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종섭 총동창회장. 사회에 공헌하는 서울대인을 길러달라고 당부했다.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SNUAA 포럼, 한인커뮤니티에 오픈 동창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 매달 두번 째 토요일 줌으로 진행

미주 동창회가 동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포럼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오픈한다.

브레인네트워크/포럼 위원장인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박사는 포럼의 일반 공개는 동창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포럼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미국생활에 적합한 주제를 골라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동창회는 일간지에 기사 게재를 의뢰해 포럼을 한인커뮤니티에 홍보할 계획이다.

포럼은 매달 한 차례 진행되는데 반응이 좋으면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포럼은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오전 9~10시(서

부시간) 줌으로 진행된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웹사이트(<http://snuaa.org>)에 접속, 줌을 클릭하면 쉽게 포럼에 연결된다.



지난 2월 권순영 박사가 진행한 서울대 동창회 포럼. '아프가니스탄 사막에 기적을 심다'는 내용으로 강연했다.

올 상반기 계획된 포럼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3월: 위종민 박사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와 해수의 담수화 기술 현황
- ▲4월: 권오을 박사
사회적 신뢰와 한국 경제
- ▲5월: 제니퍼 손 변호사
세금, 상속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
- ▲6월: 하용출 교수
한국사회의 시민의식과 국

격의 상관관계

- ▲7월: 서진호 교수
미세조류에서 모유성분 우리고당 추출
- ▲8월: 여름 휴강.
- ▲문의: brainnet@seas.ucla.edu
310-760-1891

'SNUAA 스칼라' 장학생 미아 송 초청 주미나 '미·중의 외교적 압력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3월10일(금) 오후 5시30분(서부시간)

미주 동창회는 제 1회 'SNUAA 스칼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미아 송(코넬대)을 초청, 오는 3월 10일(금) 오후 5시 30분(서부시간) 주미나(zoominar)를 가질 예정이다.

미아 송은 현대그룹 산하 한미협회가 주관한 '2022 포니정재단 에세이 공모전 및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웨비나에서 미아 송은 한국의 문화 미디어가 소프트파워를 행사, 어떻게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지

를 설명한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과 주한미군의 영향 등을 분석, 웨비나 참석자들과 토론도 벌인다.



미아 송은 현대그룹 산하 한미협회가 주관한 '2022 포니정재단 에세이 공모전 및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창회 웹사이트(<http://snuaa.org>)에 접속해 Zoom을 클릭하면 누구나 주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동창회 장학위원장인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박사는 “미아 송이 'SNUAA 스칼라' 첫 수상이자 만큼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310-760-1891(한홍택)

성낙호 동문 추모 줌모임 3월4일 재미과기협 주관

지난해 10월 타계한 성낙호(공대 60·전 터프츠대 명예교수) 동문의 일생과 업적을 기리는 줌 모임이 오는 3월 4일(토) 오후 4시(서부시간) 열린다.

재미과기협(회장 김영기)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줌에는 서문원·한홍택·이강원 등 서울대 출신의 과



기협 회장들이 나와 고인을 추모한다.

성 동문은 지난해 10월 22일 한국 방문 중 불의의 사고로 별세했다.

줌링크: <https://uchicago.zoom.us/j/99990712326?pwd=YWJBNnV5VXlHWWhdC2ZsN1lJSSDFKZz09>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라스베가스 웨스트게이트 리조트 호텔 공항과 컨벤션센터 등 접근성 뛰어나



웨스트게이트 리조트 호텔 전경. 4성급 호텔로 파킹은 무료다.

가족여행 최적화... 즐길거리·볼거리 많아 벨라지오의 '시르케 뒤 솔레오' 공연은 압권 "일반동문들도 참여하는 축제의 장 만들 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웨스트게이트 리조트(Westgate Resort) 호텔은 한국인들 사이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곳이다. 세계 최대의 IT 박람회인 CES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는 걸어서 불과 8분 거리다.

3년 전에는 박원순 당시 서울 시장이 이 호텔에서 개막한 'CES 2020' 스페셜 세션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스마트 시티 서울'을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스베가스 모노레일과도 바로 연결돼 있고 라스베가스 힐튼 역 역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메인 스트립 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매커런 국제 공항은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곳에서 공연을 한 바 있어 로비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최근들어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웨스트게이트는 파킹이 무료다.

이상강(의대 70) 차기 회장은 이같은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웨스트게이트 호텔을 회의 장소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역 최고의 골프장인 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이 바로 인접해 있는 등 가족여행으로는 최적화된 곳이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SNUAA 스칼라' 장학금 모금을 위한 나눔 골프대회를 열

어 동문들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라스베가스에서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내 가족여행지로도 1순위로 꼽히는 곳이어서 라스베가스를 회의 장소로 낙점

했다고 밝힌 이 회장은 “처음엔 각 지역 동창회장들과 평의원들만 모여 일정을 소화하려 했는데 마침 휴가철이어서 일반 동문들에게도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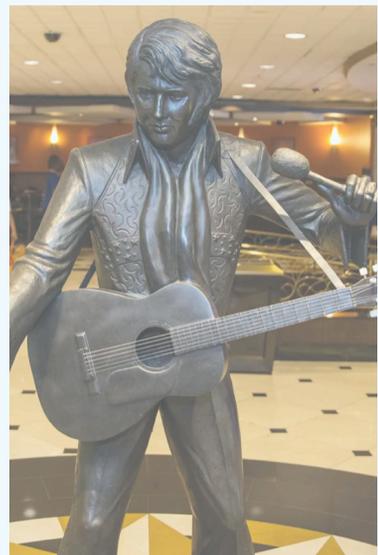
특히 올해는 코비드-19 팬데믹이 거의 종식돼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동창회를 통한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룸을 예약할 수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호텔 룸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올해 평의원 회의는 동문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방침이다.

라스베가스는 최근 롤러코스터, 박물관, 실내 야생동물공원, 암벽 등반, 번지점프 등 가족중심의 즐길 거리를 대폭 갖춰 관광객들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시르케 뒤 솔레오(벨라지오), 마담 투소 라스베가스, 샤크 리프 아쿠아리움(만달레이 베이), 에델 엠 초콜릿 팩토리, 스트리트 모스피어(그랜드 캐널 샵스), 빅애플 코스터(뉴욕뉴욕) 등 볼거리로 다양하다.

뽀니뽀니해도 그랜드캐년 헬기 투어는 평생 잊지못할 추억을 제공한다.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동상.

하기환(공대 66)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10월 22~14일 남가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 “서울대 ‘스타트업’ 동문 많이 참여했으면...”

하기환(공대 66) 동문과의 인터뷰는 예정보다 거의 1주일 가량 늦어졌다.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자 며칠 후에나 답장이 왔다. “지금 콜로라도 스키장에 있는데...” 70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스키라니 믿기지 않았다. 몇번이나 큰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모굴’이나 ‘트리’와 같은 난이도 높은 스키를 즐기고 있다.

“스키협회 회원 50명과 함께 갔는데 내가 최연장자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못해요. 기술로 날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

까(웃음).” 승부사의 기질이 비즈니스에서 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진하게 묻어났다. 어렵사리 하 동문을 LA 한인타운에서 만났다. 강한 햇살이 흰눈에 반사된 탓인지 얼굴이 붉으스레 타 있었다. 하 동문의 사무실은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었다. 1층은 순두부 식당에 세를 줬다. 미주 한인사회의 ‘슈퍼리치’ 답지 않게 오피스는 비좁고 초라했다. 천으로 된 소파는 나이가 족히 20살도 넘어 보였다. 스키는 이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몸을 곧추 세웠다. - 편집자.



LA한인타운 한복판에 들어선 ‘Doctor Kee Whan Ha Square’ 표지판.

-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았다. 한상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상(韓商)은 한인기업인, 재외동포 경제인을 아우르는 말이다.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한상이다. 이 한상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비즈니스 컨벤션이 바로 세계한상대회다. 한상이 왜 중요한지는 화상(華商)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이 G2로 급부상한 숨은 세력이 바로 화상 아닌가. 유대상인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로스차일드, 모건, 록펠러 등 유대상인집단이 인류경제에 끼친 영향력은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다고 들었다.

“금년이 제 21차 대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제주, 부산, 울산 등지를 오가며 모두 한국에서 열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외, 그것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된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다.”

- 꼭 한상만 참가하나.

“아니다.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 경제인들과 한국의 중견기업인들이 자율적

으로 참여해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국제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올해는 미 주류기업들의 참여도 예상된다. 개최지가 하이텍의 메카인 캘리포니아인만큼 한국의 스타트업이 대거 참가할 것 같다.

애너하임 컨벤션센터는 전시장 면적이 7만6천 평방미터에 달한다. 1,2층을 다 사용할 계획이다. 입지조건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디즈니랜드가 바로 이웃해 있다.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도 그리 멀지 않다. 골프장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두번씩이나 했다. 상공인들도 따지고 보면 한상 아닌가.

“맞다. 이번 한상대회도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치른다.

내가 처음 회장이 된 것은 1992년이다. 한마디로 열악했다. 회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미 주류사회와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믹서(Mixer)’를 열었다.

한인들과 주류사회 경제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행사다.”

- 무엇보다 하기환 하면 LA폭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한인 이민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겪었다. 1992년 4월 29일, 이른바 ‘사이구’는 하기환이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터다. 당시 한인회장은 내부 분열로 공석이나 다름없었다.

총영사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내가 만장일치 위원장으로 추대

됐다.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자행됐다. 자칫 우리가 맨손으로 일군 타운이 잿더미가 될 상황에 내몰렸다.

라디오에선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빨리 문닫고 귀가하라’는 방송이 반복돼 나왔다. 나는 방송국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일터는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고는 “(집에 가지 말고) 우리가 타운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분위기가 반전됐다. 나도 권총을 챙겨 쌀포대와 자동차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는 지붕에 올라가 공포탄을 마구 쏘아댔다. 타운 상인들도 모두 무장한채 나를 따라 폭도들과 대치했다. 결국 시위대는 더이상 접근하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소방 당국은 날이 어두워지면 폭도 수백명이 공격을 할 거라며 대피를 권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군이 투입돼 혼란한 상황이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평화대행진’ 아이디어를 내놨다.

안전문제로 반대가 심했지만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만명의 우리 동포들이 쏟아져 나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에 참여, 미 주류사회에 깊은 울림을 줬다.

폭동이 진압된 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타운을 찾았다.

나는 연방차원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대부분 관철시켰다. 피해 복구가 빨리 이뤄진 배경이다. 나는 지금도 폭동에서 타운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만의 나라가 아니다.”

- LA한인회장도 두 번씩이나 했다.

“폭동을 경험한 나로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결속은 물론 주류사회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2000년 처음 출마한 회장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물리쳐 ‘직선회장’이라는 명예를 거머지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스테이플스 센터(프로농구 LA 레이커스 홈구장)를 빌려 한인 수만명이 참가해 응원전을 펼친 것도 내 이력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시 관계자들을 설득해 단돈 1달러를 주고 그 큰 실내 경기장을 빌렸다. 폭동으로 얼룩진 한인들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신한다.”

- 뒷말 많은 단체장을 두루 섭렵했다. 왜 욕 많이 먹고 적이 생기는 커뮤니티 활동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전화 한 통 없어서 도움을 청할 곳이 하나도 없었다. 한마디로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 정착력을 키워야 하는데 내가 30년 넘게 각종 단체 활동에서 손을 놓치 못하는 이유다. 얼마든지 파워를 키울 수 있는데도 결집되지 않으니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커뮤니티 힘을 기르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

- 왜 사서 욕을 먹는가. 적당히 타협하면 될 텐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말을 가끔 듣지만 나는 성격적으로 그러질 못하다. 손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하고 의리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지난해 한인타운의 노숙자 쉼터 경우만해도 그렇다. 우리만 잘 살고 주변의 타인종이나 소외된 계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숙자들에게 점퍼와 담요, 텐트 등 도움의 손길을 주던 우리가 정작

(5면에 계속)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이웃에 홈리스 셸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거의 광적으로 반대운동을 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인가. 한인사회가 ‘넌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인식될까 두려워 셸터의 입주를 지지한 것이다.”

- 하 동문의 이같은 노력이 결국 보상을 받았다. LA 한인타운 한 복판에 ‘하기환 박사 광장(Dr. Kee Hwan Ha Square)’이 생기지 않았는가. 훈장도 받고…

“지난 2013년 LA 시의회 결의로 내 이름을 딴 광장이 생겼다. 이 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거 같다. 우리 동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2020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포장 가운데 가장 훈격

다. 1988년인가. 대형 슈퍼마켓인 한남 체인을 인수했다. 80만 달러 쯤 준 것으로 기억한다.”

- 한때 ‘폭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웃음). LA폭동과 지진, 불경기 등이 겹쳐 부동산이 거의 모두 내 수중에서 떠나버렸다. 그런데 우연히 사들인 한남체인이 재기의 발판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은 매장이 7개로 늘어났다. 연매출은 2억달러가 넘는다.

내겐 ‘캐시카우’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와 개발이 본업이다. 얼마전 텍사스 델러스의 초대형 쇼핑몰을 사들였다. 6,300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다. 이 몰을 제 2의 한인타운으로 만들 꿈에 부풀어있다.”



LA 폭동뒤 한인타운을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피해복구를 강력히 요구, 관찰시켰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하기환 회장.

LA폭동 때 총 차고 비상대책위원장 활약 부동산투자로 부 쌓은 ‘마이더스 터치’ 한인타운 한복판에 ‘하기환 박사 광장’

이 높다고 들었다. 훈장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내 이민생활을 결산한 셈이라고 할까.”

- 박사학위 소유자다. 공학박사, 그것도 명문 UCLA에서 받았다.

“석사는 위스콘신대(매디슨), 박사는 UCLA에서다.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 교수로 임용되기 직전 방위산업체인 ‘휴스 항공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 그래서 경험을 쌓고 귀국하겠다는 것이 그냥 미국에 눌러 있게 된 것이다. 1년 남짓 일했는데 매우 ‘보링’ 곧 무료했다. 일에 흥미를 잃고는 접어치웠다.

힘들게 공부해 학위를 땀는데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후회했다면 지금의 부를 쌓았겠는가. 부동산 투자와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얼마 안돼 LA의 노른자위인 월셔 블러버드의 고층빌딩을 두개나 사들이는 등 큰 돈을 벌었다.

‘하 회장이 만지면 돌도 노다지로 변한다’는 우스개가 돌아다녔다. 소위 ‘마이더스 터치(Mida’s Touch)’라는 것이

- 작년 11월 서울대 동창회가 주관한 나눔 골프대회에 참가해 많은 동문들이 놀랐다. 못을 상황이 아니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내 생활 신조때문이었다. 서울출장을 다녀온 그날 저녁 LA공항 인근에서 열린 에어 프레미아 갈라 행사에 참석했다. 새벽에 일어나 자동차로 거의 4시간을 달려 라스베가스에 도착했다. 거의 잠을 못잔 상태에서 운전했다. 티오프 시간이 오전 10시여서 서둘러야 했다. 동창회에 참가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했던 것이다.

내 모교 행사 아닌가. 나는 신생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 프레미아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올상반기 보잉 점보기 2대를 추가 도입해 뉴욕노선에도 취항한다.”

- 서울대 동문들에 당부할 말씀은?

“많은 우리 동문들이 이번 한상대회에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는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살고 있다. 창업을 했거나 할 예정인 동문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동창회에서도 창업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무료진료소 운영 김경숙(간호대 82) 동문



호프 클리닉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김경숙 동문.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분들이 웃음을 되찾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김경숙(간호대 82) 동문은 메릴랜드주 락빌에서 ‘호프 클리닉’을 운영하는 Nurse Practitioner(NP)다. 호프 클리닉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기관이다.

김 동문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1회 예약진료를 한다. NP는 약 처방을 할 수 있고 의사의 감독 없이 거의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전문가다.

“대부분 건강보험이 없어 이민온 후 20년 넘게 한 번도 정기검진을 못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김 동문이 케어하는 대상은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4인가족 기준 7만5,000 달러) 미만인 사람들. 모든 진료와 검사가 무료

다. 클리닉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내과진료와 혈액 및 소변검사, 약 처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동문은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 뉴욕의 나이팅게일 헬스센터, 마운트 시나이, 노스웨스트 헬스케어 센터 등 의료기관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를 완벽히 구사해 환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신분문제와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해 병을 키워왔던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저 자신 보람을 느낍니다.”

취재=한정희(미대 81)



도움이 필요하세요?

구독문의 · 주소변경 · 기사제공 · 광고게재 · 동창회비 납부 · 후원금 등 동창회 관련 모든 문의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이호진(간호대 74) ·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818-321-2214 | leeheidi2214@gmail.com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 공연 어떻게 성사됐나

김종섭 총동창회장 · 유명환 한미동맹재단 이사장 · 신상진 성남시장 합의 성남-풀러턴 우호협력관계 ... 시거스트롬에서 별도 축하공연도 추진

오는 6월 28일 월드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평화음악회는 서울대 동문 넷의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지난 2월 13일(한국시각) 김종섭(문리대 66) 총동창회장과 한미동맹재단의 유명환(법대 62) 이사장, 그리고 신상진(의대 75) 성남시장, 그리고 금난새(음대 66) 성남시향 상임지휘자 겸 예술총감독이 오찬모임을 가졌다. 네 동문이 의기투합해 LA 공연을 확정지은 것이다.

유명환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다. 올해는 한국전 정전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유 동문

으로선 미국서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을 터다.

성남시도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는다. 신 동문은 성남이 품고 있는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우는 등 성남을 명실상부한 4차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꿈에 부풀



성남-풀러턴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다지기 위해 코스타메사의 시거스트롬(1,700석 규모)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시거스트롬 콘서트홀 전경.

어 있다.

성남은 남가주 의 한인밀집거주 도시인 풀러턴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김종섭 회장이 디즈니홀 콘서트를 제안하자 한미동맹재단과 성남시가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금난새 동문이 디즈니홀에서 70

여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 연주하게 된 배경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향의 디즈니홀 공연외에도 풀러턴과의 교류를 더욱 다지기 위해 오렌지카운티에서의 추가 공연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종섭 회장은 풀러턴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코스타 메사의 시거스트롬(Seagerstrom)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시거스트롬은 1,7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다. 시거스트롬 공연은 한국전이 발발한 6월 25일로 잡고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주한미군 복무 미국인은 350만명으로 추산 한국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지한파’

평화음악회 수익금은 한미동맹재단의 미국내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쓰인다. 현재 워싱턴 D.C.와 하와이에 비영리 법인이 설립됐는데 앞으로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내 활동은 기본적으로 역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을 회장으로 하는 주한미군전우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설립을 주도한 신경수(예비역 육군 소장) 사무총장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 편집자.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예비역 육군소장

지난 2015년부터 한미동맹재단 설립을 위해 힘썼는데 2년 후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분들은 350만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로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자산임에 틀림없다.”

- 미국에도 지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미동맹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부 성격의 비영리 법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한 US-Korea Alliance Foundation, 하와이의 Korea-US Alliance Foundation in USA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재단이 주관해서 지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주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시작됐다. 재단은 미국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 창립을 지원하고 MOU 체결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내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전우회(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이 회장에 취임해 전우회를 이끌고 있다.

5,500명의 등록회원과 4만여명의 페이스 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 서울대 동창회의 지원규모는 어떤가.

“특히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재단의 다양한 노력에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는 6월의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 음악회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단 임원 중 상당수는 서울대 출신이다. 유명환(법대 65·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오준(문리대 74·전 유엔대사) 고문, 이태식(문리대 64·전 주미대사) 자문위원, 송필호(상대 68·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고문 등이 모두 서울대 동문들이다. 고액 기부자 가운데도 서울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몽준(상대 72) 전 현대중공업회장이 개인으로 1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김종섭 총동창회장도 고액기부자 명단에 올라 있다.)

- 주한미군 복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조직돼 있는지.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창설과 함께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커티스 스카파로티)를 돕고 있다. 현재 매년 50만 달러 이상을 운영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현재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과 하와이, 조지아 등에 챕터를 창설했으며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주한미군 근무 미국인들은 대부분 ‘친한’ 인사들인가.

“주한미군을 거쳐간 미국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2년 전부터 주한미군전우회 회원, 즉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을 한국에 초청,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는 50명, 올해는 100명을 모실 계획이다. 350만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은 미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줄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미동맹재단 설립의 산파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워싱턴의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시절(2013~2016)이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그동안 한미동맹과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셨던 분들이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연로해서 더 이상 활동이 제한되고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대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검토한 아이디어가 1953년 정전 이후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분들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었다.

미주 동창회보 모바일로 보세요

최근 미주 동창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면서 휴대폰 등 모바일에서도 동창회보 기사를 비롯한 동창회 알림, 서비스 등의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www.snuua.org)에 들어가셔서 상단 왼쪽의 사이트 목록 을 클릭하시면 NEWS가 나옵니다. 미주 동창회보를 누르시면, 지난 호(pdf file)가 연도별, 월별로 일목정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부(chapters) 소식과 한국 동창회, 뮤직 비디오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금합주. 배운지 두 달도 채 안된 짧은 기간인데도 능숙한 솜씨로 연주,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시간 동창회의 '톡톡튀는' 설잔치 패션쇼... 제기차기... 대금합주... 응원전



각가지 묘기를 선보이며 제기를 차고 있는 남녀 동문들.

한마디로 알차고 풍성했다. 미시간 동창회(회장 이광진·공대 81)는 지난 1월 21일 노비 시빅센터에서 신년하례 겸 설잔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50여 명.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설을 축하하기 위해 전과 떡 등 명절음식으로 부패를 즐겼다.

이어 참가자들은 청팀과 홍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즐겼다.

고가의 상품에 눈이 먼(?) 탓인지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도

보였다.

이날 Hanbok을 입고 온 동문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Hanbok 패션쇼를 열어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금 합주. 동창회가 주관한 K-Culture Club 프로젝트에 참가한 동문들이 두 달이 안된 짧은 시간동안 연마한 대금을 연주,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설 잔치는 동요 '까치 까치 설날은'을 다 함께 부르며 아쉬운 막을 내렸다.

취재=이광진(동창회장)



전과 떡 등 명절음식으로 차린 부패. 모든게 풍성한 잔치였다.



윷놀이는 설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Hanbok을 입고 온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패션쇼. 입상한(?) 동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홍팀 청팀으로 나뉘어 펼친 응원전도 게임 못지 않게 볼만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 잔치를 준비한 임원들이 소개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가짜뉴스’는 불안정한 두뇌의 인식 탓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 평가분석하려는 의지 거의 없어 한번 입력되면 떨쳐내기 어려워 ... 긍정적 사고 지녀야

가짜 뉴스가 많아 문제가 되는 요즘. 최근에 나온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한번 가짜 뉴스에 노출되면 아무리 그 뉴스가 잘못됐다고 검증이 된 후에도 잘못된 믿음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잘못된 뉴스에서 형성된 믿음을 고수하는 현상은 왜 나타나며 그 현상을 역이용하여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공대 72)가 주관하는 포럼에서는 지난 1월 26일 ‘학문의 실생활 적용: 불안정한 두뇌 역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되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가졌다. 연사는 장승모 동문(언론정보 97). 장 동문은 SBS 공채 기자 출신으로 미시건 대학교에서 커

뮤니케이션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저널리즘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보스턴 칼리지 커뮤니케이션 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미커뮤니케이션학회(NCA),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에서 다수 최우수논문상을 받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장 동문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뇌의 불안정한 인지 현상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대인 관계 및 사회정치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 참가자들과 소통,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 편집자.



장승모
언론정보 97

왜 사람들은 한번 가짜 뉴스에 접하게 되면 아무리 가짜라고 팩트체크로 검증이 된 후에도 태도를 쉽게 고치지 못할까? 인간은 부정어를 잘 소화(process)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다. 예를 들어 강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듣는 이들의 대부분은 말의 의도와는 달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코끼리’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가짜라는 뉴스라고 접하는 순간 우리의 두뇌에는 기후변화와 가짜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입력되며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연관성이 두뇌에 깊숙이 틀어박혀 바꾸기가 힘들게 된다.

우리의 두뇌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해서 많은 정보를 일일이 평가 분석하려는 의지가 없고 될 수 있으면 남의 얘기에 따라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더군다나 나와 성향이 같은 정치인의 주장이라면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두뇌의 작용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heuristic)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백신과 자폐가 관련있다는 주장이 오래전 유명 학술지(The Lancet)에 실린 적이 있다.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의 오류를 지적했고 결국 논문도 학술지에서 철회되었지만, 논문에서 파생한 음모론은 지금까지도 돌고 있다. 한번 연결고리가 두뇌에 입력되면 떨쳐내기 힘들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내가 “프랑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와인, 아트, 패션, 박물관, 혹은 더럽다 등등. 프랑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이처럼 처음 떠오르는 서너 가지 기억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결정된다.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는가는 대상에 대한 기억을 얼

성이 크다. 만약 처음 만난 상대방이 제 3자에 대해서 기분 좋은 칭찬만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년 후 동일인을 기억했을 때 굉장히 좋게 기억할 확률이 높다.

같은 맥락으로 본인의 입으로 남에 대해 나쁜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게 좋다. 내가 말한 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



‘구두쇠 이론’ ... 두뇌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습성 “다른사람에 대해 말한 것이 결국 내 이미지 된다”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언어는 되도록 삼가해야

마나 빨리 끄집어내는데 따라 그 강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측정방식은 마케팅, 특히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응용되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정한 두뇌의 인식 방식을 어떻게 실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당신이 말한 것이 당신이 됩니다(You become what you say)’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 자발성 특성전이(Spontaneous trait transference)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 자신의 이미지가 된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를 만나면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고 하자. 우리의 두뇌는 불안정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활기차다”, “기분이 좋아진 다”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구별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과 함께 저장해 두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활기차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상대가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훨씬 가능

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이전 직장에 대해 나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꼭 이전 직장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면접관이 처음 만난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들을 때 평가시 면접관들로 하여금 인터뷰 대상자와 부정적인 단어를 함께 떠오르게 하므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단어는 되도록 삼가게 좋다. 아랫사람한테 흔히 많이 쓰는 인사말 중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해주세요”가 있다. 그런데 두뇌는 No를 생각보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탓에 이런 인사말을 들었을 때 의도치 않게 ‘없어’는 빼고 ‘부담’과 말한 사람을 연결해서 기억하게 된다. 같은 의미라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인사법인 “편하게 연락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좋다. 사과할 때도 잘못된 사실을 일일이 나열해서 과거의 불쾌했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언어는 되도록 배제하고 사과의 의미만 전하자.

남성 참가자들에게 흔들리는 무서운 다리와 넓고 안전한 다리 앞에서 같은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자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는 심리실험을 한 적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여자를 만나 같은 얘기를 나누는 참가자들이 무서운 다리 앞에서 만났을 때 여자를 훨씬 더 로맨틱하게 묘사한다는 사실이다. 위험을 마주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된다. 사랑에 빠져도 심장이 빨리 뛰는. 몸의 변화를 잘못 해석하는 흥분전이 효과(excitation transfer) 현상으로 첫 번째 사건에서 일어난 몸의 반응을 두 번째 사건에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공포영화에서 자주 사용된다.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지 전에 무시무시한 음악을 먼저 틀면 정작 실제 장면이 매우 무섭지 않더라도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화 인지(embodied cognition)는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억지로라도 크게 웃는 연습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웃는 순간 뇌에서 과거에 웃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쾌감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운동이나 바른 자세가 가져다주는 자신감도 같은 이유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선물이나 경험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체화 인지의 한 예다.

데이트를 한다면 한여름이라도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갈 때 냉커피보다는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기를 조언한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을 때 뇌는 따뜻한 느낌을 떠올리며 상대방에게 그 언어를 투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뜨거운 커피를 같이 마셨을 때 상대방에게 느끼는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실험이 있다.

두뇌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방식 외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이날의 강연은 그러한 불안정한 두뇌의 인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삶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 동문과 함께 하는 온라인 강의다. 장 동문의 강의를 <https://snuane.org/archives/3052> 가면 다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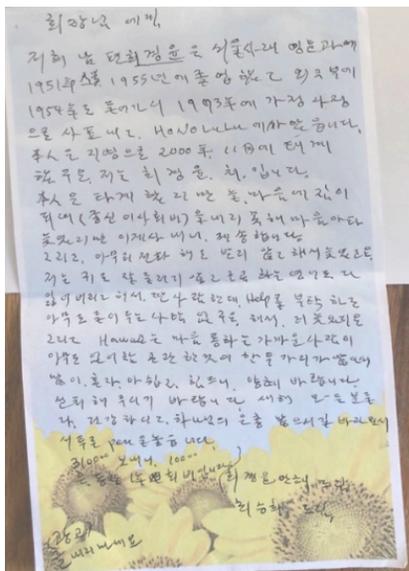
취재=이경애(인문대 73)

20년 전 타계한 남편 추모하며 종신이사와 동창회비 낸 사연

“종신이사 회비를 못내 늘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내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살고 있는 최승희 여사. (고) 최경윤(사대 51) 동문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대 영어과를 졸업한 고인은 외무부에서 20여년을 근무한 정통 외교관. 지난 2000년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최 여사는 “남편이 타계한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종신이사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고 털



어났다. 최 여사가 보낸 수표에는 3,100 달러가 적혀 있었다. 3,000 달러는 종신이사 회비, 나머지 100 달러는 동창회비 1년치라고 꼭꼭 눌러썼다. “매달 보내주시는 동창회보, 알찬 내용을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받으시길 바라며 서투른 펜을 놓습니다.” 그러면 서 최 여사는 “이제야 좀 후련한 것 같다”며 “빛을 곁은 느낌”이라고 글을 맺었다.

취재=이호진(간호대 74)



지난해 생스기빙데이 때 재회한 57학번 음대 동기생들. 왼쪽부터 이종애(피아노), 고애자(피아노), 장대옥(작곡) 동문.

동창회비 대납해준 ‘60년 동기 우정’ 뉴저지 고애자·LA 장대옥 음대 동문 오빠들도 미시건대 ‘룸메이트’ 절친

“저의 친구 것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보낸 이는 뉴저지주 알파인의 고애자(음대 57) 동문. LA 인근 토런스에 살고 있는 ‘동기동창’ 장대옥 동문의 회비도 함께 보내왔다. 그것도 2년치, 400 달러의 동창회비를 동봉했다. 체크와 함께 장 동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정갈하게 눌러 썼다.

지금까지 친구의 회비를 대납해준 경우는 고 동문이 처음이다. 무슨 사연이 있는걸까.

궁금한 나머지 먼저 장 동문에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애자한테 연락받았어요. 이렇게 고마울수가... 원래 제가 ‘제너러스(generous)’해요. 글썄 제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이처럼 넉넉하다며 친구 자랑을 한껏 늘어놓았다.

뉴저지의 고 동문은 전공이 피아노, LA의 장 동문은 작곡이다. 맨 먼저 미국에 온 이는 고 동문. 졸업하던 해인 1961년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에 자극받았던 장 동문도 이듬해 LA 땅을 밟았다. 인연이 미국으로까지 이어져 60여년의 우정이 쌓이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뉴저지에서 10여 년을 이웃해 살았다.

지난해 생스기빙데이 때는 뉴저지에서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장 동문의 뉴저지주 아들이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줘 대학친구들을 초청한 것.

이번엔 동창회비를 대납해준 고 동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전화를 걸어왔다. 반지를 얹아 메시지를 남

겼는데 1시간쯤 후에야 답장이 왔다. “편집장님, 동부시간으로 밤 11시 30분 전화드릴게요.”

정확한 시간에 휴대폰 벨이 울렸다. “곧 자정이 가까운데 안 주무세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CBS 심야 토크쇼가 있어요. 그걸 봐야되서 잠을 늦게 자요.”

알고보니 고 동문은 스티븐 콜버트(콜베어)의 광팬. 진보성향의 시사토크 사회자로 젊은이들 사이엔 대통령 못지 않은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80대 중반을 넘긴 분이 콜버트의 정치풍자쇼에 빠져있다니... 헐!”

두 동문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오빠들도 일찌기 유학와 미시건 대학에서 룸메이트를 한 사이다. 고 동문의 두살 연상 오빠는 문리대(물리학 전공) 출신. “지금도 오빠는 ‘문리대야말로 대학 중의 대학’이라고 으시대고 있다”며 웃었다.

슬쩍 친구의 회비를 대납한 연유를 물었다. “(수다를 떨려면) 공통의 화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자가 LA로 이사를 가 신문을 안 본다고 해서 내가 회비를 내줬어요. 동창회보가 아주 재밌어요. 이번 달부터는 우송된다고 하니 대화의 소재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거 같아요.”

두 동문은 몇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서로 배려하는 마음씨가 친자매 이상이다.

“이번엔 내가 (회비를) 내줬지만 2년 후엔 (장) 대옥이가 내것까지 내면 되요. 하하하.”

“헬스센터 우정이 ‘골드’로 발전했어요” 김경숙(간호대 68)·오드라 홍(음대 70) 동문

김경숙(간호대 68) 동문과 오드라 홍(음대 70) 동문은 LA한인타운의 한 실내 헬스장(아로마)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다.

먼저 미주 동창회 종신이사가 된 건 김 동문이다. 이를 알게 된 홍 동문은 “이왕이면 골드이사가 되시라”고 권유, 김 동문은 지난해 12월 7,000 달러를 더 내고 골

드이사로 ‘업그레이드’했다. 홍 동문은 “선배따라 강남가겠다”며 자신도 골드 이사(1만 달러)가 됐다. 체육관에서 다진 선배 우정이 그야말로 ‘골드’로 발전한 것. “앞으로 동창회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움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

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봤습니다. ‘중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한인 언론사를 방문해 'SNUAA 스칼러'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미주 동창회 회장단. 왼쪽부터 한홍택(공대 60) 장학위원장, 노명호(공대 61) 동창회장, 이상강(의대 70) 차기 동창회장.

학업성취도와 리더십을 최우선 고려 글로벌 인재 발굴, 동창회 외연확대 도움 “전문직 동문 자녀들도 멘토로 기용할 터”

미주 동창회가 올해도 한인커뮤니티 인재 발굴을 위한 'SNUAA 스칼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예산은 미주 동창회가 배정한 5만달러와 기부자 이름으로 주는 '지명 장학금' 5만달러 등 모두 10만달러다.

'SNUAA 스칼러'는 리더십과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한국계 인재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이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성장, 사회에 공헌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한홍택(공대 60) 장학위원장은 부모나 본인의 재정 상태를 묻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우리가 처음 일 것이라며 SNUAA 스칼러 프로그램은 여니 한인 커뮤니티 스칼러십과 달리 인컴택스 리포트가 첨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질이에요. 리더십이 있고 학업성취도가 뛰어나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키워주자는 것이 스칼러십의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한 동문은 기계공학부문의 권위자다. 삼성호암상을 수상했으며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원장을 지낸 원로 공학자다. 그 자신 SNUAA 스칼러십에 5만 달러를 기부해 동창회의 장학제도가 뿌리 내리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SNUAA 장학금 수혜대상은 반드시 서울대 동문이나 자녀들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한인커뮤니티에 오픈한 장학금이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해 4월 선정한 제1회 SNUAA 스칼러에는 전국에서 70여 명이 지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10명이 뽑혔다.

1인당 1만달러의 장학금은 지난 6월 LA에서 열린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지급됐다.

심사위원회는 동창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기했다. 한 위원장은 SNUAA 스칼러 프로그램이 명실공히 한인사회의 인재산실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또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소속감을 심어주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돈만 주고 받고 끝내면 장학금을 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창회 장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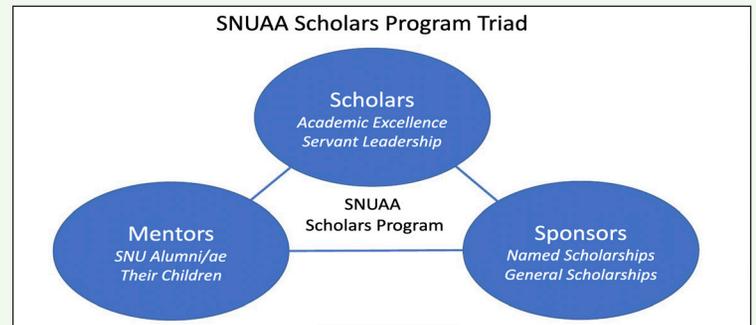
최근에는 코넬대를 졸업한 미아 송 SNUAA 스칼러가 한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와 동창회 관계자들이 한껏 고무됐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동문 자녀들을 멘토로 기용, SNUAA 스칼러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동문은 동문자녀들까지 동창회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와 동창회의 외연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10명의 장학생이 탄생하면 10년 후 SNUAA 스칼러가 100명이나 된다. 서울대 동창회의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동문들의 고령화로 점차 위축되어 가는 동창회에 젊은 피가 유입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지부 동창회 행사에도 (장학생들을) 초청해 일체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동창회의 활성화에 SNUAA 스칼러만큼 좋은 제도도 또 있을까요.”

‘지명 장학금’ 기부 동문 늘어나 고인의 유지, 기업명의 장학금도 단과대 스칼러십도 고려해볼만



올해 'SNUAA 스칼러'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명 장학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명 장학금은 기부자의 이름을 딴 스칼러십으로 미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제 1호 지명 장학금 기부 동문은 동창회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홍택(공대 60 · UCLA 석좌교수) 박사다. 한홍택 · 백훈(미대 61) 동문 부부의 성을 따 '한백 장학금'으로 명명했다.

이어 고광국(공대 54) ·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가 1만달러를 쾌척해 지명 장학금 대열에 합류했다.

고 동문 부부는 특수 원할유 등 자동차와 관련된 화학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크라이센 인더스트리스'를 설립,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 기업인이다.

고국화 동문은 한국 최초의 여성 공학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눈길을 끈 것은 기업체의 장학금 기부. 삼익약기 미주 법인이 1만달러를 보내왔다. 삼익은 한국 총동창회장인 김종섭(문리대 66) 동문 소유의 기업이다.

미국은 물론 글로벌 인재를 발굴한다는 'SNUAA 스칼러'의 취지에 동감, 선뜻 1만달러의 체크

를 보내왔다.

이외에도 김 총동창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골프장을 미주 동창회에 내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골프 토너먼트를 치르도록 도왔다.

가슴 뭉클한 사연은 유시영(문리대 68) 동문의 이름을 딴 지명 장학금이다.

지난해 11월 4일 타계한 유 동문의 아내 유은주 여사는 “남편은 서울대를 나왔다다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갖고 지냈다”며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고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고인은 아내와 함께 평생 흡리스 사역을 하는 등 '노블리스 노블리주'를 실천한 동문으로 존경을 받았다.

한 장학위원장은 “물론 'SNUAA 스칼러'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 지명 장학금이 많아야 하지만 단과대학 별로 지명 장학금을 만드는 것도 여러 동문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SNUAA Science Scholarship'을 예로 들며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면 훌륭한 장학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국(공대 54) · 고국화(공대 56) 부부.



유시영(문리대 68) · 유은주 부부.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비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제 1회 'SNUAA 스칼라' 미아 송 한미협회 주관 에세이 공모 · 학술대회 최우수상 '영예'

제 1회 미주 동창회 'SNUAA 스칼라' 장학금을 받은 미아 송(코넬대 4학년)이 한미협회가 주관한 '2022 포니정 재단 한미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및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미협회는 정치 경제 안보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한미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63년 발족한 비영리 단체다. 현대그룹 산하 포니 정 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한미대학생 학술 에세이 공모전을 열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1만달러의 부상이 지급된다. 다음은 미아 송이 본보에 보내온 수상 소감이다. - 편집자.

Bridging the Gap Between Korean-American



미아 송

This past summer, in July 2022, I was invited to speak at the Pony Chung Korea-American Academic Essay Conference, held in Korea, after receiving the first-place award for my thesis: 'Bridging Sino-U.S. Tensions with South Korean Media Culture.'

This eighty-paged thesis began as a passion project while I was studying abroad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during the fall semester of my senior year. I was informed by the Inequality Studies Center at Cornell University about this opportunity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that sought essays from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 Korean or American citizenship.

The foundation asked that we submit a thirty- to fifty-single spaced essays on one of three categories: 1)

Korea-U.S. Diplomacy, Korea-U.S. security, or Korea-U.S. economy. The purpose of this contest wa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Korea-U.S. relations, enabling students to research and produce works that would promote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 was both intrigued and fascinated

member.

I grew up absorbing and observing many cultural facets of South Korea, having gone back several times as an adolescent. Growing up as a Korean-American in New York City, with two South Korean immigrant parents has granted me the privilege of staying in touch with my roots, being able

ance the precarious diplomatic relations with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this extent, I analyzed how Korean cultural media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used to counter rising diplomatic pressures.

In order to develop this narrative, I conducted research reaching back to the Korean War when U.S. military forces employed soft power through cultural media by spreading democratic ideologie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and radio station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cultural media has had and continues to have positive social and economics effects on South Korea.

In the final defense, the thesis emphasizes the need to incorporate universal human themes in cultural productions to maximize the reach of cultural media, and ultimately, the potential of soft power.

I was able to have an incredibly rich and fulfilling summer by taking the week off to visit South Korea and deliver a 5-10 minute speech about the essay that I had spent four month reading, researching, writing, and editing. I honored to be able to share this story with generous donor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and hope that you continue to support students like me.



Mia Song examines how Korean cultural media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to counter rising diplomatic pressures from Sino-U.S. relations.

by this opportunity to embark on a research journey that began with a mini-dissertation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hich I would eventually bring home and complete during my winter break back in the United States. My interest and passion for South Korean history and culture go back as long as I can re-

to safely represent and simultaneously be proud of my Korean heritage.

In brief, my thesis focused on the rise of global attention unto South Korean media culture and examining its soft power effects in the midst of rising Sino-U.S. tensions. I delved further into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ttempting to bal-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귀국 3.5년 차 이원영-정연진 부부 “부부 연방제 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LA동창회에서 연극에 몰입했던 그 시절, 잊혀지지 않아



이원영(정치학 81)
정연진(서양사학 81)

박용필 선배(동창회보 편집고문)로부터 ‘이원영-정연진 부부의 서울살이’에 대한 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순간 거절할까 생각했다. 뭐 별 특별한 얘기도 없거니와 뻘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단 하나. 전관예우. 어떤 수단을 써도 역전할 수 없었던 신문사 대선배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의 글이 동문들에게 흥미롭게 읽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 할 것이란 양념(?)까지 치시는 바람에 그만 원고료도 안 주는(ㅋㅋ) 글을 쓰겠다고 응답하고 말았던 것이다.

서울 생활이라고 내가 20여년 살았던 미국 엘에이 코리아타운 생활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 한국말하고 한국음식 먹고 한국 언론 접하고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나는 미국 생활을 두 차례 했다. 한번은 중앙일보 기자 3년 차가 채 되지 않았던 시절에 주재기자 겸 특과원 자격으로 엘에이에서 4년을 보냈고, 본사에 귀임해 5년을 국제부 정치부 등에서 보내다 미국을 다시 들어가 20년을 보냈다. 기자생활로 치면 20년을 보낸 셈이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나는 기자생활을 은퇴하면 남은 2라운드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40살 언저리에 주경야독으로 엘에이에서 한의대를 다녔다. 사람의 몸을 보살피는 일도 기자 일만큼이나 보람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의학 공부를 계기로 자연치유에 눈을 뜨고, 현대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의대 졸업 후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당장 한의원을 개업해 비즈니스를 하는

이원영 “이제 기자 연장전 마치니 하고픈 게 많아요” 정연진 “한국, 미국 오가며 ‘디지털 코리아’ 한류전파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것보다는 내가 공부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더욱 보람 있겠다는 생각에서 신문에 ‘진맥세상’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한의학과 자연치유, 그리고 사회문제와 접목시키는 칼럼을 10여년 이상 집필했다.

이색적인 칼럼에 독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내 글을 관통하는 기본 줄기는 자연치유, 즉 약과 병원에 의존하지 말고

다. 내가 언론에서 항상 비판했던 ‘의료 비즈니스’의 길을 가야하나,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추구하던 자연치유 전도사의 길과 돈벌이 의사의 길은 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민은 깊어졌다.

옆에서 나의 고민상을 지켜보던 아내(정연진. 이하 연진. 서양사학과 81학번. 나와는 동기지만 학교 때는 알지 못하고 엘에이동창회에서 인연을 맺었다.)가 어느날 내 어깨를 툭 치더니 “그냥 한국 들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지식문제, 돈문제, 부부간 합의 문제가 가장 큰데 이 세 가지가 해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자식은 알아서 살아라 했고, 돈은 있는 수준에서 가난하게 살자고 합의했고, 둘 다 한국행을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금세 풀렸다.

2019년 중순 한국에 들어오니 미국에서 집을 팔아 온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살 수가 없었다. 미국 연금 받으려면 아직도 3,4년은 버텨야 하는데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빚 없이 살 수 있는 자그마한 빌라를 사서 주거를 마련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살면 부자고, 빌라 살면 ‘빌거지’(빌라 사는 거지)라 불린다는 말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았다. 미국 생활하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습관을 기른 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멘탈을 키워주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우연찮게 고맙게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에서 3년을 연장전 근무하며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생활은 면할 수 있었다. 한국생활을 연착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올해 1월 계약이 해지되면서 33년의 언론인 생활을 확실하게 마감하고 이제 진짜 은퇴인이 되었다.

아내 연진은 미국에 있을 때는 매년 2,3회 한국에 나가 몇 주씩 체류하면서 사회운동을 해왔고, 지금은 거꾸로 미국을 매년 그렇게 방문하면서 거의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연진은 미국에서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를 위해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활동을 벌였고, 위안부 피해자보상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벌였다.

이후 ‘디지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류의 미국 전파에 앞장섰다. 위안부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연대회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조국의 분단 상황을 절감했고, 이후 시민풀뿌리 통일운동단체인 ‘액션 원 코리아’(A-OK)를 창립해 현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통일 운동가로서 변함없는 활동을 펴고 있다.

연진은 ‘영주 귀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13면에 계속)



두 세달에 한 번씩 어머님 방문차 귀국하는 김지영 선배와 함께.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김성수 선배.



서울서 미국입시 컨설팅을 시작한 양민 선배 부부와 함께.



LA관악연대에서 어울리다 귀국한 양지훈(가운데, 카페인영), 박현욱(현대차 연구원) 후배와 함께.

생활을 바꾸면 우리 몸이 다 알아서 치유한다는 메시지를 즐기치게 전했다. 약사와 의사,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외압도 많이 받았지만 독자들의 성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

2018년 신문사를 퇴직하자마자 한의원을 오픈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베이스캠프를 치고 자연치유 전도사가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오픈하자마자 급격한 스트레스가 밀려왔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생활비를 벌려면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나를 짓눌렀다. 의료공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몸무게가 항상 62~63kg을 벗어나지 않던 내가 60kg 아래로 빠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였

어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다. 순간 나는 “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갑자기 캄캄한 터널에서 빛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정리하고 귀국했다. 아들과 딸에게는 “너희들 대학도 졸업하고 일자리도 잡았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작별인사와 함께. 의외로 아이들은 “우리 걱정 마시고 한국 들어서 잘 사세요”라는 반응이어서 살짝 놀랐다. 여기까지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사연이다. 귀국 사연을 다소 길게 얘기한 것은 “개네들 왜 들어간 거야?”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 생활 은퇴한 다음에 고국으로 귀향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영신의 헬스푸드(6)

채소 섭취 어떻게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

영주권자인 그는 여전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로서 미주에 뿌리를 둔 글로벌 활동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시민권자인 나는 오히려 영주귀국을 했다는 심리다. 나는 좀 처한 상황에 올인하는 타입이라 양다리를 거치지 못한다. 시민권은 미국 연금 문제 등을 고려해 취득하게 됐다.

미국 시민권자 동포로서 한국에서 사는 데는 거소증만 받으면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점이 없다.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재산에 따라)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도 생긴다.

한국에 들어와 개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나의 경우는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었다. 일단 집을 용자 없이 샀으니 모기지 나가는 게 없고, 자동차도 딱히 필요 없어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 지방 구석구석 다닐 용도 외에는 아직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집 재산세라는 것도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필수 지출이란 게 별로 없다. 가장 많은 지출이 내 술값과 외식비다. 미국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이것저것 지출할 것이 많아 항상 쪼들렸고, 재산세 낼 때도 버거웠다. 돈을 더 벌지 않았는데도 돈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행의 선물이었다.

연진과 나는 같은 듯 다른 게 있다. 나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을 돌면서 1~2년씩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연진은 사회운동을 하는 형편 상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 나는 자연을 누비며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연진은 그보다는 컴퓨터 앞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연진은 다중 앞에서 또박또박 연설을 잘 하는데 나는 술자리에서 수다 떠는 것을 더 잘한다. 연진은 뭇가 일을 할 때 열정적이고 에너지를 얻지만, 나는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상황도 잘 즐기는 편이다.

이렇게 다른 점도 있지만 삼겹살 먹으면서도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하고 즐기고, 과시하는 소비에 관심 없고, 죽기 전에 남북 평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부부 연방제'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

참고로 '부부 연방제'는 부부도 연방제 처럼 각자 존재를 인정하고, 억지로 통일하려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서 '외치'는 연방으로, '내치'는 주권국가로 하자는 나의 주장인데, 한국 언론인으로서 내가 최초로 칼럼에서 사용한 단어다. 요즘 모임에서 가끔 이 어원과 의미를 얘기하면 의외로 호응을 많이 받는다. 부부가 통일을 추구하면 깨지기 쉽지만 연방제를 하면 오래 갈 수 있다고 설명하면 맞아, 맞아 하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부 연방제' 창안자로서 자부심도 느껴진다.

한국생활? 일단 마음이 편하다. 나의 경우엔 특히 그렇다. 이민자 생활을 할 때는 별로 인식을 못 했지만 이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보니 남의 땅에 사는 것과 조국 땅에 사는 그 안온함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런게 있다. 나는 좋은 부분을 보는 편이다.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의 좋은 점을 즐겼다면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의 좋은 점을 즐긴다. 한번 선택한 것은 별로 후회를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행에 만족하고 있다.

엘에이에서 아크로폴리스 웹사이트를 열정적으로 만들며, 지적인 소통을 하던 그 시절이 무척 그립다. 남가주총동창회에서 난생 처음 연극이란 걸 해보고 그걸 10여년 이어가며 몰입했던 그 시간도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언론에서 완전 은퇴한 지금 그동안 출퇴근 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몇가지를 하고 싶다. 사놓고 읽지 못했던 책 읽기, 기타나 다른 악기 하나 배우기, 시니어 연극단 만들기, 자연치유 관련 책 쓰기, 중국어 공부 등.

나는 기자생활을 하며 한국과 미국을 오간 인생 1라운드를 보냈다. 겪어보니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삶을 꾸려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난 엘에이에서도 잘 살았고, 서울에서도 행복하다.

(*아, 참. 미국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면 각별한 반가움이 있다.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동문들도 있고, 가끔 방문하는 동문들 때문에 몇몇이 함께 모여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도 참 재미 있다. 동문 선배님들 한국 오시면 반가운 회동 기대하겠습니다.^)

얼마전 한국보건연구원이 개최한 '노인건강관리 정책방향' 회의에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현재 30·40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빨리 노쇠해지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식생활이 나빠지고, 운동은 덜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스마트폰을 자기 전까지 보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발표를 볼 때마다 건강정보, 영양제가 넘쳐나는 세상에 건강은 나빠지고 노쇠는 빨라진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 정보가 많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 하는 실천이 건강을 만든다는 만고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필자의 건강정보를 조금이라도 실천에 옮겨 동문들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건강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고민하지 않고 채소라고 말할 것이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넘쳐나니 맛이 없고 손이 많이 가는 채소는 덜 먹게 된다.

채소는 수분, 비타민, 항산화제 등의 영양소뿐 아니라 당대사, 장내 미생물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스트레스가 많고, 가공 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때 보다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당의 형태에 따라 혈당이 더 올라 갈 수도 덜 올라 갈 수도 있으니 통곡물을 먹는 것을 권장한다. 그런데 통곡물이 맛이 없어 먹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한다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현미와 같이 통곡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어 당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백미를 먹으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

록 할 수만 있다면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백미를 안 먹을 이유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사할 때 충분한 양의 채소를 같이 먹으면 된다. 식사 구성과 혈당 상승에 관한 연구에서 백미와 함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였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 아래 사진의 양을 한끼에 먹기를 권장한다. 나물 반찬으로, 국에 넣어서, 고기에 함께 넣어서 등등 요리할 때 채소는 되도록 넣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준비해보자.

조리 방법도 중요하다. 너무 푹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뿐 아니라 소화가 쉽게 되어 앞에서 말한 당을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는 효과가 없어진다. 식감이 살아 있는 채소가 되면, 씹는 즐거움도 주고 건강이 쑥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할까? 채소는 색깔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 채소는 대략적으로 초록색, 미색, 붉은색, 갈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매끼 4가지 색을 다 갖추어 먹으면 좋다.

그런데 채소를 두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4가지 색 채소를 다 갖추어 먹기가 힘들다면 최소 하루에 4가지 색의 채소를 다 먹도록 노력해보자. 채소의 다양한 색은 다양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따로 영양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건강하다.

영양학을 전공한 나조차도 요리하기가 귀찮아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생채소를 초장 짝어 먹기이다. 당근, 오이, 파프리카 등을 잘라서 식탁 위에 향시 올려 놓는다. 식탁에 놓여 있으니 식사 때뿐 아니라 입이 심심하다 싶을 때 먹게 되고 다른 단간식의 양이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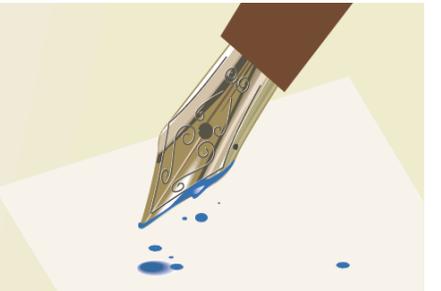
우리나라 초장은 참으로 신묘하다. 맛있는 채소가 초장과 함께 있으면 맛이 어지니 말이다. 생채소 소화가 안되는 분은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다.

<식품영양학 박사>



원고 모집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주제 (Topic), 글의 양 (Word count), 사진 (Photo), 보내실 곳 (Where to send). Topics include social/economic/cultural issues, health, and environment.





동창회의 어르신들

벤자민 홍(문리대 53), 이영일(문리대 53), 이채진(문리대 55) 동문을 비롯한 50년대 학번들도 참석해 이날 모임을 빛내졌다. 총회는 낮시간대에 열려 밤운전이 불편한 동문들도 다수 참석했다.

헤드테이블엔 누가?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장과 한홍택 UCLA 석좌교수, 임춘택 남가주 차기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맨 오른쪽의 최운화 동문은 이날 경제특강을 재치있게 풀어 큰 박수를 받았다.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 · 회장 이취임식
300여 동문 호텔 볼룸 짝 채워 보기드문 ‘레코드’
낮시간대 · 날씨 화창 · 코로나 종식 ... 참석자 ‘신기록’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 행사는 정말 ‘레코드’인 거 같네요.”

남가주 총동창회의 배재현(공대 75) 신임 총무는 사뭇 상기된 표정이었다. 회비 접수대엔 7명의 동문 도우미들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마치 분주한 주말 은행 창구를 떠올리게 했다.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동문들에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안내한 배 총무는 흔이 빠진듯 보였다.

지난 2월 4일 LA 인근의 노워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의 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풍경이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을 짝 채운 이날 모임은 배 총무 말대로 ‘레코드’ 곧 기록적인 행사였다. 주최 측은 각 단과 대별로 사전 참가 예약을 받았다. ‘노쇼’(no show)는 거의 없었다. 300여 명이 빈틈없이 자리를 메웠다.

예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량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것이다. 혹시 추가로 참석하겠다는 동문들이 있을까 마음을 조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레코드’로 치러진 건 주최 측의 아이디어가 큰 몫을 했다. 예년에는 저녁시간대 디너 모임으로 치렀으나 올해는 낮 12시로 바꿨다. 밤 운전을 꺼려하는 50~60 학번대의 ‘나이드신’ 선배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80세가 넘는 62학번 이상 동문은 68명이나 됐다.

날씨도 도움이 됐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레인스툼’에 이어 비가 오락가락했으나 이날만큼은 화창하게 개었다. 낮 최고기온은 화씨 72도. 나드

공대 · 간호대 대거 참석해 ‘세과시’ 화제 만발
 박제환 이임 회장, 시 ‘귀천’ 인용, 큰 울림줘
 김경무 신임 회장 “30년만에 드디어...” 폭소



회장 이취임

박제환(문리대 75) 회장이 남가주 총동창회기 김경무(공대 69) 신임회장에게 넘긴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총무도 이취임식?

신임총무인 배재현(공대 75) 동문과 이임하는 김희경(사대 80) 동문.

최운화(상대 78) 동문의 재치있는 경제 특강
 최경식(사대 63) 동문의 결혼 60주년 ‘경사’
 80세 이상 동문 무려 68명이나 참석 ‘눈길’

리하기엔 딱 좋은 날씨였다.

뭉뚱하니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으로 마스크 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동문들의 민낯을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테이블에 앉아 담소

를 나누는 모습이 한결 정겨워보였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1부순서의 사회를 맡은 김희경(사대 80) 총무가 개회를 선언한 시간은 12시 정무 무렵.

장진영(음대 86) 동문의 애국가와 교가 선창, 민일기(약대 69) 상임이사 이상강(의대 70)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 등 내빈 소개,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노 회장은 “동창회보다 2,200부가 남가주 동문들에 우송될 만큼 미주 동창회 27개 지부 가운데 남가주 총동창회는 규모가 가장 크다”며 “크고 작은 동창회 행사는 물론 커뮤니티 이벤트에도 참여해 서울대의 위상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섭(문리대 66) 총동창회장도 한국서 축사를 보내와 남가주 동문들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남가주 동문들이 뜻과 힘을 모아 모교는 물론 미주한인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발자취를 남겨주시기를 44만 서울대인과 함께 바라마지 않는다”고 인사를 건넸다.

박제환(문리대 75) 회장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인용, 이임사를 해 동문들에 울림을 줬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박 회장은 어느새 임기 1년이 훌쩍 지나갔다며 지난 세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 한 칸에 늘 간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남가주동창회기를 김경무(공대 69) 신임회장에게 이양, 동창회의 리더십이 바뀌었음을 공표했다.

김경무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남가주) 총동창회에 몸 담은지 30년만에
<15년에 계속>



전직 회장들도...

전임 회장들도 이날 다수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오른쪽부터(남성) 김상찬(문리대 65), 김건진(문리대 62), 성주경(상대 68) 전직 회장.



또 공대 테이블?

신임회장이 공대 출신이어서인지 이날 총회에 참석한 공대 동문들은 무려 59명이나 됐다.



합창단의 축하 공연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이 장진영 동문의 지휘로 '남촌' '강 건너 봄이 오듯' 등을 불러 행사장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았다.

(드디어) 회장에 올랐다"고 말해 폭소가 터져나왔다. 김 회장은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무·김정희 부부는 각각 공대와

11월 구순잔치를 치른 흥 동문은 부인 비비안 여사와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시 문리대 53학번인 이영일 동문도



미대도 세과시(?)

이날 총회에 미대 동문들도 다수 참석,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상훈, 김영태 두 남성 동문들도 함께 어울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최운화 (상대 78) 동문의 경제 특강. 작금의 경제를 재치있게 풀어 참석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왔다. 4시간여나 계속된 올해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는 경품추첨을 끝으로 아쉬운 막을 내렸다.



새치기 안돼요!

접수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동문들이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하기 시작해 임원진이 진땀을 흘려야 했다.

간호대 출신의 동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날 공대 출신은 무려 59명이나 됐다. 간호대도 대거 18명이 참석하는 등 '세과시'를 했다.

특히 김정희(간호대 72) 동문은 과일과 떡을 손수 장만, 테이블을 풍성하게 꾸미는 등 내조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총회에선 김원철(농생대 70) 동문을 감사로 선임한데 이어 임춘택(상대 68) 동문을 차기회장으로 만장일치 인준했다. 임 동문은 내년 2월부터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날 최고령 선배는 한인금융계의 원로 벤자민 흥(문리대 53) 동문. 지난해



다이아몬드 웨딩

최경식(사대 63) 동문은 이날 결혼 60주년을 맞아 부부가 축하인사 받기에 바빴다. '이날의 롤모델'고 소개돼 동문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부부가 나와 어울렸다. 지난 1월 문리대 신년하례식에서 '북한과 평화공존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 이채진(문리대 55) 클레어몬트 매키나대 석좌교수도 부인 강미자(음대 62) 동문과 함께 끝까지 행사를 지켜봤다.

신임회장의 고교(경기고) 및 공대 동기생의 통 큰 기부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범천 동문이 남가주 총동창회에 1만 달러의 기부금을 낸 것.

제 2부는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장진영 동문의 지휘로 '남촌'과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불러 행사장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았다.



웬 한복?

권국원(공대 69) 동문은 부부가 개랑한복을 입고 나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권 동문은 이날 회장에 취임한 김경무 동문과 동기생.

"경제학 이론은 알 필요가 없어요. 내게 적용되지 않는 한 상관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 동문은 팬데믹의 특수상황을 이룬바 '블랙 스완(black swan, 기대하거나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 빗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풀이했다.

정부의 대응정책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한 최 동문은 최대 관심사인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주식해서 돈을 번 경우는 윤과 불법 행위(내부자 거래) 두 가지 외엔 없다고 단언, 장내엔 한바탕 웃음꽃이 피



'누님'과 한 컷

카우보이 차림의 이명일(약대 72) 동문이 김향자(약대 61) 동문과 익살스런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남가주 총동창회 주요 사업계획

- ▲춘계골프대회(5월 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위티어)
- ▲미술대 전시회 및 옥션(5월)
S. 빌리지
- ▲종전 70주년 평화 음악회(6월 28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 ▲할리웃 볼(8월 중)
할리웃볼
- ▲야유회(9월 23일)
랄프 클락팍(부에나파)
- ▲음대 및 합창단 정기공연(10월 중)
- ▲관악연대 골프(11월 4일)
로스 버디스 컨트리 클럽



노쇠한 법대?

총회에 참석한 법대 동문들은 대부분 50년대 학번이었지만 그래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테이블을 두 개나 차지, 동문들에게 법대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간호대도 테이블 두 개

이날 참석한 간호대 동문들은 모두 18명. 신임회장의 부인(김정희)이 간호대 동문이어서 대거(?) 참석했다.

한류 이끄는 이수만 · 이미경 · 방시혁 · 황동혁 ...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빌보드차트 1위를 휩쓴 방시혁(미학91) 하이브 의장.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음악, 방송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제작한 이미경(가정관리77) CJ그룹 부회장.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황동혁(신문90) 감독 ... 서울대 동문들이 정·관계, 재계, 학계를 넘어 대중문화계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오세정 전임 총장은 작년 분회 동문 나눔 골프대회에서 "학교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동문들이 스스로 터득한 지식과 기술로 한

류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가올 미래엔 문화가 중요한 만큼 서울대가 우뇌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모교는 관악캠퍼스 제1 파워플랜트를 새롭게 단장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음대는 실용음악 분야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새해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하면서 대중문화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교 동문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



배우 탤런트

신영균(치의학48) 모교 치대 졸업 후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1960년 영화 '과부'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마부', '연산군',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 등 300여편에 출연한 성실한 배우이자, 유능한 사업가다. 불링장, 제과점, 부동산업과 호텔업 등을 연거푸 성공시켰고, 2010년 5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쾌척해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을 세우고 영화제작 지원과 장학사업 등을 펼쳤다. 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2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2020년 대중상 영화계 공로상, 2021년 총동창회 관악대상 등을 받았다.

이수재(철학54)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했고, 현재까지 최고령 현역 배우로서 지칠줄 모르는 연기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1978년 영화 '하늘아래 슬픔이', 1992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1999년 '허준'에 이어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2013년 예능 '꽃보다 할배'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 데뷔 65주년을 맞아 주연 및 연출 감독으로 활약한 연극 '리어왕'은 전회차 매진을 달성했다.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가천대 석좌교수로서 후배 연기자를 양성하고 있다.

2018년 은관문화훈장, 2022년 총동창회 관악대상 등을 받았다.

정진영(국문83) 1988년 연극 '대결'로 데뷔했다. 1997년 영화 '초록물고기', 1998년 '약속', 2001년 '킬러들의 수다', 2003년 '와일드 카드', 2005년 '왕의 남자', 2008년 '님은 먼곳에', 2014년 '국제시장', 2016년 '판도라' 등에 출연했으며 2020년 영화 '사라진 시간'의 감독을 맡아 배우 이전에 영화감독이란 오랜 꿈을 이뤘다.

1998년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2020년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신인감독상 등을 받았다.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를 맡기도 했다.

김우성(동양화89) 1991년 MBC 2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2000년 '메디컬센터', 2010년 '근초고왕', 2014년 '내 생애 봄날', 2018년 '키스 먼저 할까요?', 2019년 '바람이 분다', 2021년 '조선구마사' 등 드라마와 2002년 '결혼은 미친 짓이다', 2004년 '알포인트', 2005년 '왕의 남자' 등 영화에 출연했다. 2006년 대중상영화제 남우주연상, 2018년 SBS 연기대상

을 받았다. 2011년 와인의 본고장 보르도 여행경험을 담아 '아주 소박한 와인수첩'을 펴냈다.

황석정(국악89) 2001년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로 데뷔했다. 2010년 '황해', 2016년 '곡성', 2017년 '살인자의 기억법', 2018년 '그것만이 내 세상', 2022년 '이공삼칠' 등 영화와 2010년 '시크릿 가든', 2012년 '신사의 품격', 2014년 '미생'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2019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등을 받았다.

김혜은(성악93) 1997년 청주 MBC 아나운서로 데뷔, 2007년 MBC 일일드라마 '아현동 마님'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다. 2012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 2016년 '판도라', 2017년 '보안관',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021년 '더 로드: 1의 비극' 등에 출연했다. 2014년 대전드라마 페스티벌 여자조연상을 받았다.

김신록(지리99) 2004년 연극 '서바이벌 퀘린더'로 데뷔했다. 2005년 영화 '연애의 목적', 2018년 '버닝'에 출연했다.

2021년 드라마 '지옥'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고, 2022년 '재벌집 막내아들'을 통해 스타로 발돋움했다. 2022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조연상을 받았다.

김태희(의류99) 2000년 우연히 광고대행사 디자이너를 만나 CF를 찍으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2003년 드라마 '천국의 계단', 2004년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를 거치면서 톱스타로 발돋움했다.

2009년 출연한 '아이리스'가 대박을 치면서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2011년 '마이 프린세스', 2013년 '장옥정, 사랑에 살다' 2020년 '하이바이, 마마' 등에 출연했다. 2009년 KBS 연기대상 중편드라마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2015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자 최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이상윤(물리00) 2007년 영화 '색즉시공 시즌2'로 데뷔해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2012년 '내 딸 서영이', 2014년 '엔젤아이즈', 2016년 '공항가는 길', 2017년 '굿속말', 2019년 'VIP', 2021년 '원더우먼' 등에 출연했다.

오는 3월 11일 tvN을 통해 첫 방영되는 드라마 '판도라: 조작된 낙원'에서 주연을 맡았다. 2009년 한국방송대상 신인 탤런트상, 2012년 대한민국 문화 연예대상 드라마 인기상, 2019년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우수연기상 등을 받았다.

이하니(국악02-06) 2006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진으로 데뷔했다. 2012년 영화 '연가시', 2014년 '타짜: 신의 손', 2017년 '부라더', 2018년 '극한직업', 2019년 '블랙머니', 2022년 '외계+인 1부'와 2013년 드라마 '상어', 2017년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2019년 드라마 '열혈사제', 2021년 '원더우먼' 등에 출연했다. 2014년 대중상영화제 하나금융스타상, 2019년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등을 받았다.

옥자연(미학07) 2012년 연극 '손님'으로 데뷔했다. 2016년 영화 '밀정', 2018년 '버닝', '안시성', 2019년 '백두산', '비스트' 등과 2020년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2021년 '검은태양', 2022년 '슈룹' 등에 출연했다. 형사나 특전사 같은 강인한 느낌의 여성역할을 많이 맡았다. 2022년 전주국제영화제 배우상을 받았다.

가수

김창완(잡사71) 형제들로 구성된 가족 밴드 '산울림'의 맴형으로 기타와 보컬, 작곡 등을 담당했다. 1977년 산울림 1집 앨범 '아니 벌써'로 데뷔했다. 산울림으로 활동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 이름으로 솔로 앨범도 자주 냈는데, 산울림 스타일과는 달리 조용하고 잔잔한 발라드나 포크송을 불렀다. 동요에도 관심이 있어 '개구쟁이', '안녕', '예쁜밤 예쁜 꿈' 등을 지었다.

연기도 겸해 1992년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1999년 '카이스트', 2004년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2007년 '커피프린스 1호점', 2013년 '굿닥터'에 출연했다. 1978년 TBC 가요대상 중창부문 은상, 2007년 MBC 연기대상 PD상 등을 받았다.

유희열(작곡90) 1993년 유재하 음악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본인은 곡을 만들고 객원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 원맨밴드 '토이'를 결성, 1994년 1집 '내 마음속'을 발표 후 가수는 물론 음반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진행했다. 안테나 뮤직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적(사회92) 1995년 패닉 1집 앨범 'Panic'으로 데뷔했다. 익스, 카니발 등 그룹과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과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

의 역습' 등의 OST작업을 했다. 올초 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OST Part 3을 발매했다.

1996·1997년 골든디스크 본상,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 2016년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베스트 OST, 202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루시드폴(본명 조윤석 응용화학93) 1997년 밴드 '미션이'를 결성해 1998년 발표한 정규 앨범 'Drifting'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랭크돼 있다. 2001년 1집 'Lucid Fall', 2005년 2집 '오, 사랑', 2007년 3집 '국경의 밤', 2009년 4집 '레미제라블', 2011년 5집 '아름다운 날들', 2013년 6집 '꽃은 말이 없다', 2015년 7집 '누군가를 위한', 2017년 8집 '모든 삶은, 작고 크다', 2019년 9집 '너와 나', 2022년 10집 '목소리와 기타' 등을 발표했다.

버벌진트(본명 김진태 경제99) 1999년 노래 'Big Brag'로 데뷔했다. 2006년 015B 7집의 타이틀곡 '그녀에게 전화 오게 하는 방법'에 래퍼로 참여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7년 '무명', 2008년 '누명', 2009년 'The Good Die Young', 2011년 'Go Easy', 2012년 '10년 동안의 오독 1', 2015년 'Go Hard part 1: 양가치', 2021년 '변곡점' 등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장기하(사회00) 2008년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로 데뷔해 2018년까지 5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2009년 1집 '별일 없이 산다'가 4만여 장 판매됐으며 그 해 올해의 노래상, 최우수 록노래상, 네티즌 선정 올해의 남자 음악인까지 총 3관왕을 달성했다. 2011년 2집 '장기하와 얼굴들', 2014년 3집 '사람의 마음', 2016년 '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딴가요', 2018년 5집 '모노'를 밴드 이름으로, 지난해 '공중부양'을 솔로 음반으로 발표했다.

빈지노(본명 임성빈 조소08) 모교 재학 시절 힙합 커뮤니티 '디시트라이브'에 올린 자작곡이 계기가 돼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힙합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다 2016년 첫 솔로정규앨범 '12'를 발표했다. 2008년 시미 트와이스와 2인조 남성힙합듀오를 결성, 다양한 싱글앨범을 발표함으로써 당시 국내에선 생소했던 재즈 랩을 대중에게 알렸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Put it down' 등을 공개했다.

공부만 하는 ‘범생이’ 아니었네 ... 대중문화계 접수한 동문들

개그맨

노정렬(신문89) 1996년 MBC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그전에 1990년 연극배우로, 1991년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력이 있다. 대전MBC 시사 프로그램 ‘시시각각’, tbs 라디오 ‘주말이 좋다’를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 ‘노정렬TV’를 운영 중이다.

서경석(불문91) 1993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코미디언으로 데뷔, ‘그렇게 깊은 뜻이~’ 등을 유행시키며 1999년 MBC 코미디 대상을 수상했다.

2003년 군제대 후 MC로 전업해 ‘느낌표’, ‘TV는 사랑을 싣고’, ‘위기 탈출 넘버원’, ‘한밤의 TV연예’ 등 교양형 예능프로그램 진행을 주로 맡았고, 2013~2015년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7년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우수상 등을 받았다.

제작자

이수만(농공71) 1970년대 포크송 가수이자 진행자로 재능을 보였고,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한 후 제작자로 변신, 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열었다. H.O.T.와 S.E.S., 보아로 ‘원조 한류’를 불러 일으켰고,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로서 빠르게 메타버스 세계관을 연예계에도 입하며 새롭게 도전해 왔다.

이미경(가정관리77) CJ 그룹 부회장으로 1994년 드림웍스와 파트너를 맺고 CJ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영화·음악·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한류 열풍에 기여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뒤에 총괄 프로듀서로 기획과 홍보를 진두지휘한 이 동문의 공로가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영화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말 씀해주신 한국 관객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지난해 에미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BBC 방송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들었다.

최용배(서양사82) ‘한국영화만을 전문 투자배급하겠다’는 꿈을 안고 2001년 투자배급회사 창립했다. 서예대에서 영화를 공부

부하고 ‘남부 군’ 연출부로 총무로에 발을 들였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로 제작자의 명성을 높였고 ‘26년’, ‘작업의 정식’ 등 다양한 결의 영화를 제작해오고 있다.

김우택(경영83) 종합콘텐츠그룹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NEW) 대표이사 회장이다. 메가박스와 쇼박스를 거쳤다. 영화 투자배급으로 시작해 영화·드라마 제작에 뛰어들었고, 음원 유통, 스포츠마케팅, 영화관 운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다. 1000만 관객 영화 ‘부산행’,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대박’ 작품을 탄생시키며 주요 콘텐츠 제작업자로 자리매김했다.

방시혁(미학91) 하이브 의장이다. ‘죽어도 못 보내’ 등 히트곡 작곡가에서 2005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2016년 BTS가 세 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제작자로도 성공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2022년 모교 경영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리에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업의 본질로서 ‘생존’ 그 자체에 집중했다”는 것을 성공비결로 꼽았다.

김준구(화학생물97) 네이버웹툰 대표를 맡고 있다. 네이버에 개발자로 입사했다가 좋아하는 만화 관련이라는 이유로 웹툰 부문 일을 시작,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북미와 유럽 등에 웹툰 플랫폼을 진출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강정구(경제98) 카카오엔터 글로벌 사업실장이다. 만화·소설 플랫폼 ‘픽코마’로 만화의 본산지 일본에서 앱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한 카카오의 웹툰 사업을 이끌고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 감독

오성윤(회화82-) 2011년 데뷔작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1위 기록을 보유한 감독이다. 애니메이션 불모지인 한국에서 관객 220만명을 동원한 쾌거였다. 모교 졸업 후 노동영화 작업을 준비하다 우연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것이 지금의 일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차기작 ‘언더독’이 전세계 60여 개국에 판매됐고, ‘캐리와 슈퍼콜라’가 해외 개봉 예정이다.



방시혁 동문이 키운 방탄소년단.



신원호 동문이 연출한 응답하라 1988.



김우택 동문이 제작 배급한 영화와 드라마들.

박흥식(독문84) 지난해 11월 바티칸 교황청에서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탄생’으로 시사화를 열어 화제가 됐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신수원(독어교육86)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시나리오를 전공하고 2010년 ‘레인보우’로 장편영화에 데뷔했다. ‘명왕성’, ‘젊은이의 양지’ 등 현실적인 주제의 작품들로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여성 감독이다.

김일호(산업디자인88) 1996년 애니메이션 창작 스튜디오 ‘오론’을 창업했다. 유아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공동 제작해 120개국에 수출하며 애니메이션 한류를 이끌었다.

이재규(신문90) 영화감독이자 드라마 PD다. 2003년 첫 연출작인 ‘다모’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일약 스타PD가 됐고, ‘베토 벤바이러스’를 또 한번 히트시켰다. 영화에선 ‘역린’에 이어 ‘완벽한 타인’으로 비평과 흥행을 모두 잡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해외 시청자까지 사로잡고 있다. 동기 황동혁 감독과 절친이다.

황동혁(신문90) 모교 졸업 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영화제작학 석사학위를 받고 2007년 ‘마이 파더’로 감독에 데뷔했다. ‘도가니’ 등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 코미디영화 ‘수상한 그녀’, 사극 영화 ‘남한산성’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치아가 6개나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하며 만든 ‘오징어 게임’이 2021년 넷플릭스에 공개돼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에미상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 등 6 관왕을 거

머쥐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준비 중이다.

이장훈(컴퓨터공학93) 모교 졸업 후 게임 개발자로 일하다 채프먼대에서 영화 제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각본을 쓰고 연출한 첫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1년작 ‘기적’까지 필모그래피에 파스한 감성이 두드러진다.

조성희(산업디자인97) 애니메이션 연출을 하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 첫 단편영화 ‘남매의 집’으로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무서운 신예’로 영화계에 등장했다. 2012년엔 33세 나이에 ‘늑대소년’으로 상업 영화에 데뷔,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거머쥐었다. ‘탐정 홍길동’ 등 작품에서 상상력과 뛰어난 영상미가 특징이다. ‘승리호’로 SF에도 도전했다.

장훈(디자인99) 모교 졸업 후 연출부로 영화계에 입문, 2008년 ‘영화는 영화다’로 데뷔해 주목 받았다.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의형제’, ‘고지전’, 천만 영화 ‘택시운전사’ 등을 이을 차기작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궁선(건축00)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졸업후 다수의 단편영화를 연출, 호평 속에서 ‘내공’을 쌓아 온 여성 감독이다. 청춘의 혼란을 주로 그려왔다. 2021년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10개월을 그린 ‘십개월의 미래’로 장편에 데뷔했다.

이릭 오(오수형 서양화02)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 아카데미 후보작 ‘오 페라’의 감독이다. 픽사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며 ‘도리를 찾 아서’, ‘인사이드 아웃’ 제작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돈코 하우스’ 소속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모교 서양화과 졸업 작품으로도 애니메이션 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UCLA에서 영화·TV·디지털 미디어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오니’를 공개했다.

방송PD

신원호(응용화학94) tvN 드라마 ‘응답하라’와 ‘슬기로운’ 시리즈가 연이어 성공하며 스타 PD로 자리매김 했다. 모교 재학 시절 영화감독을 꿈꾸기도 했으나 방송 PD로 진로를 바꾸고 2001년 KBS에 입사,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 ‘도전 골든벨’ 등을 거쳐 ‘남자의 자격’ 연출로 실력을 입증했다.

이 후 CJ E&M으로 옮겨 ‘응답하라 1997’을 연출, 케이블 드라마 최초로 두 자릿 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최근 나영석·이명환PD가 몸담은 CJ E&M 산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으로 이적했다.

양정우(지구환경시스템공학03) tvN 공채1기로 입사해 다큐PD로 일을 시작했다. 예능 ‘신서유기’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활약을 펼쳤고,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 ‘삼시세끼 어촌편’에 이어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든 ‘알쓸신잡’으로 대표작이 생겼다.



김인중
농생대 74

학창 시절,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어울려 놀다가 게임비가 모자라면 학생증을 맡겼다. 인상을 쓰며 난감해 하던 당구장 주인은 '서울대학교 학생증'임을 보고는 게임비 외상처리를 해주었다. 무교동 막걸리 집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증을 받아 줬다. 술이 취해 주정이라도 부리면 순경을 부르는 대신 '똑똑한 학생들이' 왜 그러냐며 달랬다. 우리는 은근히 특권층으로 행세했다.

농대 수원 캠퍼스 동네에 있던 막걸리집 '전봇대집' 주인 아저씨는 외상으로 라면들을 끊어 주었다. '똑똑하고 착한 서울대 학생'이니까. 그 외상값들을 졸업후 찾아가서 갚아보려 했지만 마음뿐이고 세월만 갔다. 전봇대집 아저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예쁜 쌍둥이 두 딸을 키우며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밥투정, 술주정을 받아주던 '마로니에' 아줌마의 그 아담한 딸기밭은 사라진지 오래다.

대학 학부시절 연세대학교 등록금은 몇만원씩 하는데 우리 서울대학교는 몇천원 하던걸로, 몇배나 싼 기억이 난다. "싸다"고는 느꼈지만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학생들 등록금으로는 학교운영이 턱도 없이 모자라고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야." 지난해 모교에 1백만 달러를 일시불로 기부한 워싱턴주의 치과 의사 동문은 학창시절 학생과에서 우연히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빚진 자이구나'를 깨달으며 갚을 것을 다짐했다. 일찍 깨이신 분이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은 모두 빚진 자들임을 벌써 그때 간파하셨으니.

학창시절 버스에서 서울대학교 빠지를 달고 있으면 의자에 앉아 가방을 받아주던 아저씨나 여학생들이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런 눈길이 부담스러워 서울대 짙은 청색 교복을 입거나 빠지를 달고 다닌 적은 대학 1학년때 한두

번 뿐이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서울대학생들에게 기대가 컸다. 당시만 해도 순박하고 허술(?)했던 민심때문이였을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70년대, 80년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면 일류기업에서 너도나도 뽑아 주었다. 다른 대학 출신들이 취업에 조바심 하던 때에 우리 서울대학생들은 일종의 특권을 누렸다.

서울공대 공릉동 종점을 오가던 버스의 차장들이 생각한다. 아마 우리는 그 때 꽤나 교만했을꺼다. 십대 소녀 차장들이 서울대 학생을 보는 선망의 눈길을 콧방귀로 무시했을꺼다. 수원역에서 서울농대 앞에 정차하는 버스에서 "농대 앞이에요"라는 소녀차장의 외침은 서러움을 머금었음을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야 감지했다.

산업화 시대, 공단에서 고생하는 어린 가장들에게 '공순이' '공돌이'라는 호칭을 서슴없이 썼다. 우리는 그들이 일함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지금은 모두 노년이 돼 있을 그들에게도 우리는 빛이 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그 빛은 '빚'이다. 갚지 않을수록 '무거워지

는' 짐이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달러 장학금을 마련해 미국 전역의 한인 대학생들에게 1인당 1만달러씩 지급했다. UCLA 교수님 등 장학위원들이 응모학생들의 실력과 장래성을 철저히 따지며 10명을 선발했다. 부모 출신 학교도 묻지 않아 선발된 장학생들 중에 동문 자녀가 있는지도 알 수 없게 했다.

일부 동문들의 불평도 있었지만 동창회장과 장학위원들은 자부심이 있었다.

"우리가 국민에게서 받은 은혜를 되갚는다" 라는 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지켰기 때문이다.

올해 2차 장학생 선발을 한다. 기부참여도 늘고 있다. 더불어, 커뮤니티의 발전에 도움이 필요한 곳은 꼭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 - 서울대 교가처럼 우리는 과연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학창시절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봐주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진 빚이 더 '무거운 짐'이 되기 전에, 서울대 동창회는 국민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손을 뻗어갈 것이다.

서울대 동문의 '무거운 짐'

열여덟 번째 낙타



노승영
영문학과 93
번역가

누구나 아는 그 낙타 이야기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세 아들에게 낙타 열일곱 마리를 유산으로 남긴다. 큰 아들 몫은 2분의 1, 둘째 아들 몫은 3분의 1, 막내 아들 몫은 9분의 1이다. 문제는 17이 2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3으로도, 9로도 나뉘지 않는다. 게다가 산 낙타를 자르면 그것은 낙타가 아니라 낙타고기일 뿐이다.

난감한 형제를 구원한 것은 낙타를 몰고 지나가는 행인이다. 그가 자신의 낙타 한 마리를 내어주겠다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유산을 나누라고 말한다. 낙타가 열여덟 마리가 되자 큰아들은 아홉 마리, 둘째 아들은 여섯 마리, 막내 아들은 두 마리를 각각 나눠

가진다. 그런데 어찌된 일 인지 한마리가 남는다.행인은 남은 한 마리를 도로 데려가 유유히 떠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각자에게 제몫대로 나눠주고도 한마리가 남을 수 있지? 평생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최근에야 답을 얻었다. 게다가 이 이야기에는 두 번째 버전이 있었다. 낙타가 열한 마리이고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로 나눠주는 경우다. 세 분수를 통분하여 더해보면 왜 마지막에 낙타 한마리가 다시 남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낙타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나자 사방에서 열여덟번째 낙타가 보이기 시작했다.

번역하다 보면 문장을 고지식하게 옮기는 것만으로는 독자를 이해시킬 수 없을 때가 있다. 영어 화자의 사고방식과 한국어 화자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일 수도 있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일 수도 있고 낱말의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서 일 수도 있다.

그럴때면 원문에 없는 낱말을 슬쩍 끼워 넣는다. 이를테면 '스콧 그라임스'를 '미국의 영화배우 스콧 그라임스'로 살짝 바꿔주는 식이다.

독자는 번역자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만 책

을 다 읽고난 뒤 독자의 머릿속에 '스콧 그라임스는 미국의 영화배우다'라는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초등학교 시절 내 삶에 들어왔다가 결혼후 떠나간 하느님도 열여덟 번째 낙타 아니었을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도덕관은 기독교의 산물이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거



의 확실하니 말이다. 지금이야 주위에서 종교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가 무신론화되었지만 인류 문명에서 종교를 제외하면 무엇이 남을까? 아니, 인류가 대형 육식동물의 먹잇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대학시절의 공부는 어디로 갔을까? 학부 137학점, 대학원 33학점의 수업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대학시절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

르는 것은 전부 강의실 바깥의 풍경이다. 공강시간에 죽치고 앉아 있던 영문학과 사무실, 수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동아리방, 공연 연습이나 집회끝나고 으레 들르던 녹두거리의 술집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번역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은 경험들, 내가 내린 선택들-내 삶의 궤적을 빚어낸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기억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낙타를 나눠갖고도 한마리가 남았듯 나는 내 몫을 전부 얻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것들은 무엇하나 내 곁에 남지 않았다.

어쩌면 열여덟 번째 낙타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들의 낙타가 열여덟 마리로 늘었다는 형제들의 착각만 있었을 뿐. 한때 내 것인줄 알았지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내 것이 아닌 것들. 어쩌면 그런 나 또한 누군가에게 열여덟 번째 낙타였던 것일까.



박상철
의대 67

늙는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상과 존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시간 한계의 표상이다. 죽음의 전 단계인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한 귀결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 대중을 이루었다. 노화와 죽음은 운명적인 과정이었기에 결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노화세포의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보다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에 대해서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가 죽음의 단순한 전 단계가 아니고 증식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한 생명현상의 일환임을 밝혀주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에 저항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면서 노화는 피동적 퇴행적 개념을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보존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노화는 비록 증식을 포기하였지만, 생존을 택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룩한 현상인 것이다.

필자가 백세인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연령이 증가되어 늙어가면 생체기

능이 점점 저하하게 되기 때문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 활동은 어떤 것일까 규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백세까지 살아온 분들은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할까 하는 의문이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노화개념은 건강노화이다. 다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구하는 활동적 노화와 나이에 상관없이 생산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생산적 노화가 있다. 이에 덧붙여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대비를 하자는 성공적 노화가 등장하여 회자되고 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축되기 마련이고 여유가 없어져가는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좌절감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가치적이고 존엄적인 의미를 찾기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긍정적 노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나 역시 의미가 뚜렷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안으로 여건이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자긍심과 당

당함을 잃지말자는 의미에서 당당한 노화(Confident Aging)라는 주제를 제안하여 늙음의 질적개념을 새롭게 부각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백세인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생명을 소중히 지키려는 의지를 보면서 삶의 존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생명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이가 들어 초체해지고 쇠퇴되어 뒤 안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새롭게 거룩한 노화(Holy Aging)라고 별도로 정의해 보고자 하였다.

백세인들이 오랜 세월의 풍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고있는 모습은 그대로 생명의 위대함, 범접할 수 없음, 귀중함을 노정해 주고있다. 따라서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 생명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오래 오래 유지하면서 지켜나간다는 일은 분명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진화의 정점에서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 있어 왔다. 직립보행부터 도구, 불, 언어의 사용이라는 여러가지 특성이 인류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류를 확고부동한 진화의 정점에 오르게한 것은 죽음에 대한 경배이다.

오직 인류만이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반드시 매장하면서 망자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죽음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속삭이면서 신화를 빚었다. 인간은 그만큼 주검을 거룩하게 생각하였고 이런 신화를 종교와 철학으로 그리고 과학으로 발전시키

‘3월의 광란’과 존 우든의 ‘러브레터’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어서다. 그렇게 아내의 체취를 느끼며 함께 살기를 스무다섯 해.

그런 노인이 100세 생일을 불과 녀달 남겨두고 눈을 감았다. 전 미국인들이 그의 타계를 애도했지만 노인의 마지막 모습은 편안했다고 한다. 이제야 넬리를 만날 수 있게 돼 기뻐던지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미국 대학농구의 ‘전설’ 존 우든(1910~2010)은 그렇게 아내를 찾아 훌쩍 떠났다.

지난 1975년 은퇴할 때까지 우든은 UCLA 농구감독을 맡아 620승이란 대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 그는 88연승을 거둬 이 부문 지금까지 대학농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특히 1967년부터 7년 연속 대학농구(NCAA) 챔피언을 차지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통산 10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이런 경이로운 성적으로 우든은 대학이 위치한 지명을 따 ‘웨스트우드의 마법사(the Wizard of Westwood)’란 별명을 얻었다. 평소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던 우든은 그러나 이 별명을

아주 싫어했다고 한다. 농구는 자신의 인생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며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선수들의 스승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언젠가 기자가 그의 장수비결을 묻자 우든은 이런 말을 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평화를 유지하며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면 된다.”

죽음은 곧 아내와의 만남을 의미해 그 예겐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것. 기독교의 믿음이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메워줘 그의 삶은 늘 평온했다.

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은 아버지 조슈아였다. 가난한 아버지는 우든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선물 대신 일곱 가지 신조가 쓰여진 카드를 건네줬다. “네 자신에게 충실하고 매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며 남을 도와주고 좋은 책을 몰 마시듯 들이키며 우정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네가 받은 축복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다.

우든은 피부색깔에 관한 한 ‘색맹(color blind)’이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절 흑인들에 배타적인 대회에

는 절대 참가하지 않은 것도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UCLA에서 그의 지도를 받은 선수는 180여명이나 된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대부분 그를 찾아와 작별인사를 했다. 그의 수제자인 카림 압둘 자바(LA 레이커스)는 우든과의 소중한 추억을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선수들에게 우든은 농구 코치가 아닌 ‘인생 코치’였다. 욕설과 동료를 비방하는 말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게임이 아닌 신사도를 가르친 참스승이었다.”

우든은 천국에서 아내 넬리와 재회해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싶다. 탐욕으로 갈수록 혼탁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든의 죽음은 그가 지닌 삶의 무게로 인해 웃음을 여미게 한다.

곧 ‘3월의 광란(March Madness)’이 시작된다. 미국 대학농구 최고의 축제다. 직장에서도 뒷사람 몰래 경기를 훑쳐봐 이 기간동안 만큼은 노동생산성이 푹 떨어진다든 우스개가 나올 정도다. 우든도 아내 넬리와 함께 천국에서 게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

노인은 매달 21일이면 LA의 포레스트 론 공동묘지를 찾는다. 20년도 훨씬 넘어 이곳 관리인들도 ‘그날’에 익숙해졌다. “넬리 정말 보고싶다. 이승에서의 삶이 빨리 끝나야 당신을 만날텐데... 사랑해 넬리.”

집에 돌아와선 아내에게 ‘러브레터’를 띄운다. 수취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노인의 연서는 노란색 리본이 달린 박스 속에 수북히 쌓여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때는 1985년 3월 21일. 그래서 노인은 매달 21일을 넬리와 ‘데이트’ 하는 날로 정한 것이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노인의 삶은 변한 것이 거의 없다. 넬리의 베개와 덮고 자던 이불도 그리고 침대도 그대로다. 아내가 누워 자던 쪽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끈히 잠든 아내를 깨우기 싫



Dante's View에서 본 데스밸리 전경.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태고의 고요가 계곡을 휘감고 있다.

민일기(약대 69)의 '데스밸리' 캠핑기 가장 척박한 땅 · 불가사의한 지형 · 태고의 신비 곳곳에 소름끼치도록 아름다운 정경 펼쳐져

나는 산다운 산이 없이 평평한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오래 살다가 17년 전 남가주로 이사왔다. 이곳에 와서는 요세미티 하프돔, 미주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마운트 휘트니 정상에 오르는 등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데스밸리(Death Valley) 국립공원에 캠핑을 다녀왔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걸쳐있는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곳이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해수면보다 282피트(86m)나 낮은 곳도 있고 여름에는 낮 기온이 화씨 134도까지 올라가 자동차라도 고장이 나면 탈수로 목숨을 잃는 조난 사고가 나기도 한다.

평소 '죽음의 골짜기'같은 곳이 올해처럼 겨울에 때 맞춰 비라도 제대로 내려주면 이른 봄부터 골짜기와 언덕에 피어나는 야생화들로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글자 그대로 죽은듯이 침묵하던 산과 골짜기들이 생명의 기지개를 켜고 예쁘게 핀 들꽃들이 이곳 저곳을 장식하면 이를 보기위해서 몇 백마일을 마다하고 운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산악회의 데스밸리 2박3일(12월 26-28일) 캠핑 트립이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다. "왜 하필 연말에 데스밸리냐? 좀 따뜻하고 화끈한 곳으로 가지?" 지난해는 여러가지로 힘든 한 해였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좀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오미크론인가 뭔가 변이종이 생겨 봄부터 전 세계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2년 잘 버티고 있던 나도 끝내 6월에는 코비드에 걸려 며칠 끙끙 앓고 일어났다.

그 뿐인가. 연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게 뛰더니 그걸 잡는다고 연준(Fed)이 이자율을 마구 올려대는 바람에 부동산이며 주식 등이 모두 곤두박질을 쳐서 분기마다 보내오는 내 은퇴 계좌도 보기가 처량할 정도였다.

이제 내 나이도 7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더 캠핑 트립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기회가 있을 때 가자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K씨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에 실망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산행

에는 늘 허덕대며 맨 꿈무늬로 내려와서 거북이라는 별명을 줄창 붙이고 다니는 내가 그래도 지난 10년동안 그랜드 캐년 밑으로 내려가 콜로라도 강물에 발도 씻고 올라와 보고 3000미터가 넘는 마운트 발디(Mt. Baldy)를 10번 이상 밟아 본 게 누구 덕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하튼 M형이 따님과 사위 그리고 두 손자까지 데리고 오기로 해서 3



Badwater Basin. 해수면보다 282피트나 낮은 강과 호수가 수분이 모두 증발, 하얀 소금밭으로 남아있다.

살부터 70대 중반까지 총 18명이 캠핑을 가기로 했다.

첫날: 모두 카풀을 해서 가기로해서 나는 우리집에서 30마일 떨어진 K씨택으로 서둘러 운전해 갔다. 근처에 C형을 태우고 2박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잘 텐트와 식량 등 모든 짐을 K씨 도요타 SUV에 실으니 벌써 한 차에 꽉찬다. 이

죽음의 골짜기는 생명의 기지개를 켜고 겨울비 흠뻑 맞아 야생화가 장관 이뤄 2박3일의 캠핑트립으로 삶을 재충전

곳 로스앤젤레스에서 데스밸리까지는 약 270마일 정도이고 부지런히 달리면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아직은 이른 편이어서 LA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이 없어 비교적 수월하게 라스베가스 가는 15번 프리웨이를 타고 1시간 30분정도 달려 데스밸리로 들어가는 190번 도로를 만났다.

데스밸리가 가까워 질수록 서부 지역

특유의 지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황량한 풍경에 차분히 앉아 앉은 태고적 고요함,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받았던 광야와 같은 분위기다. 이런 곳에서 며칠 깊은 명상이라도 한다면 무슨 특별한 도를 깨치는 계시를 받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왜 중동의 사막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생겨났는지 얼핏 이해가



데스밸리는 겨울철 여유로운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과 더불어 호흡을 하며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가기도 한다.

지붕에서 먼지가 푹푹 날 것 같은 볼품 없는 조그마한 집들이 모여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고스트 타운이 드문드문 나오고 말라붙은 강바닥 같은 모습도 보인다. 이런 지역을 구비구비 2시간 남짓 가다보니 드디어 데스밸리에 접어들고 만나기로 약

생각이 든다. 계곡의 지형이 갖가지 여러 지층으로 이루어져 Mosaic Canyon이란 이름이 붙은 모양이다.

다음 일정은 10분정도 떨어져 있는 Mesquite Point Sand Dunes. 아주 가는 모래들이 계곡에서 바람에 날려 조그마한 구름을 만들고 사방이 정말 진짜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언덕을 올라갔다 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등 나름 즐기고들 있다. 연말연휴라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제법 많아 주차할 곳이 없을 지경이다. 그곳에서 잠시 돌아보고는 오늘 캠핑 장소인 Furnace Creek(용광로 계곡)으로 향했다.

우리 캠핑장소는 그곳에서 한 20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겨울해가 금방 떨어지니까 잠자리를 빨리 잡고 텐트를 쳐야 했다. 점심도 김밥으로 대충 때웠으니 저녁은 제대로 먹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캠핑장은 널찍하고 수도시설도 되어있고 화장실도 비교적 가까워 예약이 쉽지 않았을 터.

나는 그전에 쓰던 2인용 텐트대신 새 텐트를 사서 한번도 쓰지않고 이번에 처음 가져 왔다. 상당히 넓어 혼자 자기는 아깝고 5명이 자도 되겠다. 저녁이 되자 제법 쌀쌀하여 모두들 캠프파이어 옆으로 모여들었다. 이날은 겨울 하늘인데다가 구름이 잔뜩 끼어서 사막의 영롱한 별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새벽녘에 별보러 한번 다시 나와 봐야겠다.

둘째날: 지난 밤에는 캠프파이어 앞에서 꽤 오래 버티다가 와인 몇잔 마시고 9시쯤 잠든 것 같다. 늘상 집에서 하듯이 5시쯤 눈이 떠지고 텐트밖으로 나오니 K형은 벌써 캠프파이어에 불 피우고 커피를 끓이고 아침준비를 시작한다. 오늘 아침은 아마도 떡만두국인 모양이다. M형은 새벽 2시에 텐트에서 나오니 별들이 초롱초롱 했더니? 그래서 손자들과 같이 별을 볼 수 있었다고 자랑이다. 새벽녘에 별을 보러 나온다는 것이 그놈의 와인때문에 그냥 잠들어서 별을 보지 못했다. 오늘 식사당번은 아침을 든든히 준비했을 뿐 아니라 점심 샌드위치까지 준비했다. <20면에 계속>

첫번째 행선지는 Devil's Golf Course. 악마들은 괴이하게 생긴 곳에서 내기 골프를 치는지 온통 평평한 지형이 큰 쟁기로 파 해쳐 놓은 것 같은 풍경이 계속된다. 그곳에 잘못 발을 디더 넘어지면 발이 부러질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는 문구가 안내문에 붙어 있다.

한국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기로는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나이들어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골프가 최고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골프장이 한국사람들이 안 오면 운영이 안될 정도라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골프를 하도 좋아해서 천국에 골프장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걱정을 한하는데 그럼 지옥에 가면 이런 Devil's Golf Course에서 악마와 내기하다가 혼쭐 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다음 코스는 Badwater Basin이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해수면보다 285피트가 낮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멀리서 보면 넓은 평원이 하얗게 보인다. 눈이 쌓여서 그런 것 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건조한 사막기후로 인해 수분이 모두 증발하고 남은 소금 호수이다. 중동에 있는 유명한 사해가 이제 몇년 있으면 모든 수분을 잃고 소금호수가 되리라고 하는데 이곳은 그보다 수십년 전부터 이미 소금호수가 된 것이다.

1850-60년대 포장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 온 서부 개척자들이 앞에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 막고 식량과 물도 거의 떨어진 상황에서 겨우 발견한 물이 소금물이라면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Badwater Basin(고약한 물이 나는 지역)이란 이름이 붙었는지도 모른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개척자들이 식량이 떨어져 조난을 당하기도 많이 해서 Death Valley 곧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 다음 코스로는 옛날 광산 지역으로 광물들로 인해 울긋불긋한 색깔을 띤 그림물감 같은 Palette 지역을 지나 오늘의 산행 목적지인 골든캐년으로 발길을 옮겼다. 황금의 계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가 주로 등장하는 마카로니 웨스턴영화에 나오는 풀 한포기 없이 먼지가 풀풀나는 산과 구릉지형이다. 30-40분쯤 땀을 흘리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니 사방이 확 트인 시원한 정경이 펼쳐진다.

오늘 저녁은 마지막 날이니깐 일찍부터 저녁을 준비하고 장작도 충분해서 고기굽고 음식장만 해 늦게까지 버틸 수 있다. 저녁은 K씨의 장작 숯불 스테이크 요리다. 와인을 곁들여 적당히 구운 스테이크를 맛보니 죽음의 계곡이란 것도 있고 천국의 문턱같은 생각이 난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 볼 때가 많은데 그동안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다 보니 참 아쉬운 것도 많다.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해도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절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 모두들 현재의 60-70대가 그래도 좋단다. 이제 모두 열심히 산 덕에 자녀들도 다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현재가 편안하고 아등바등하며 살던 20-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막내인 Y형 부부가 내일 아침 직장에 급히 할 일이 있다고 저녁에 돌아간단다. 깜깜한 밤길을 4-5시간 운전해서 가려면 쉽지 않을 텐데 젊음이 좋기는 좋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50이 넘어 그렇게 젊지는 않다고 한다. 따지고 보니 정말 그렇기는 한데 내눈에는 아주 젊고 참 좋은 나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가 너무 늙어버렸나? 이곳 한인사회가 이민자가 부쩍 줄어들어 생겨나는 착시 현상으로 대학 동창회 골프모임에 가면 주류가 80대라서 내가 제일 젊어 헛갈리기도 한다. 밤이 깊어 오고 와인 한잔 더 하고 잠을 청했다.

셋째날: K씨는 벌써 기상을 해서 커피 물을 끓이고 아침 준비가 한창이다. 이제 부지런히 아침을 먹고 텐트를 걷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아침은 남은 음식들을 모두 내 와서 풍성하다. 깨끗이 뒷정리를 하고는 가는 길에 몇군데 남은 코스를 들리

기로 했다. 첫번째 들린 곳은 우리 캠핑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Zabiskie Point이다. 알루미늄의 원석인 보크사이트 광석을 캐던 곳으로 그 광산회사 책임자의 이름을 딴 곳인데 높지 않은 구릉을 올라가 내려다 보는 경치가 불만하다. 어제 본 골든캐년이 바로 멀지 않은 곳에서 보인다.

다음에는 데스밸리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인 Dante's View로 올라갔다. 단테가 지옥을 본 사람이라 신곡이라는 걸작을 집필했는지는 모르지만 데스밸리에 단테의 이름이 붙은 것은 적절한 것 같기도 하다. 꼬불꼬불한 차길을 한참 올라가니 드디어 정상이다. 데스밸리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이 경치가 참으로 멋있고 웅장하다고 할까? 꽤나 높아서 그런지 기온이 제법 쌀쌀해서 모두들 바람막이 옷들을 꺼내 입었다. 이곳에서 헤어져 LA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에는 H씨 따님인 크리스틴이 구글의 유튜브 매니저로 진급한 덕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여전히 그 누렁고 웅장한 산맥이 둘러 쳐진 길을 구비구비 돌아서 해질녘에 무사히 돌아왔다. 그럼 그렇지, 이제 데스밸리도 보고 시작을 하니 올 한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표지판. 인디언 원주민인 팀비샤 쇼손(Timbisha Shoshone)족의 홈랜드라는 안내문이 눈길을 끈다. 고요한 사막과 지질학적 경이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곳이다.

The Temple of God: Physician's Perspective



Lee, Hahn Joong
이한중
의대 59

The temple of God, built with?
This body, mind and spirit,
Where I have resided some eight
decades
With or without realization that
HIS spirit may dwell in there ever
since
He created it into this world.

Alas, the temple is very old now
and

Needs lots of tender care with
all the attention to detail and true love.
Any neglect ma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worn out structure and a total destruction.
Tender loving care for this creation of HIS
may help HIS spirit continue to dwell in there
creating abundance of miracles out of HIS grace.

God is holy.

The temple where HIS spirit dwells is holy.
You may be holy whether you realize it or not.
You can only hope you will have HIS company to the end
By taking as good a care as possible of HIS temple
By taking as good a care as possible of your body, mind
and spirit,
Namely, a job of a physician, the highest calling, indeed.

A physician who has the privilege to enter these temples
indeed needs to be reminded in regard to how special
the privilege is no matter how great he may be
because in the eyes of Creator, the physician is only another
creature perhaps with a few secrets out of millions of HIS.

Alas, the Pandemic still surges after three years,
Continuing to waste millions of lives,
With viruses mutating in all directions
Puzzling the best scientific minds ever so often,
Bringing to daylight all the man-created stupidities.
And yet there are enough good men and women in this
world
Who can endure for the sake of mankind and save our
species,
God's pride, the temple of God, HIS prized creation,
the most beautiful creature of the universe.

Each human being may be holy.
Each human being may be a temple of God.
Each human being must learn to take care of his temple
God.
<시계탑>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 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 380-5060 (LA, C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 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불드느 제 2차회기

남가주

- 강경수(법 58)
- 강동순(법 59)
- 강윤희(간 46)
- 강창만(의 58)
- 강호석(상 81)
- 강홍제(상 53)
- 고석규(치 65)
- 고윤석(공 62)
- 권기상(대 72)
- 권봉성(문 64)
- 김건진(문 62)
- 김경(문 63)
- 김경무(공 69)
- 김경수(사 54)
- 김경욱(미 61)
- 김광은(음 56)
- 김교복(농 63)
- 김국간(치 64)
- 김근(농 78)
- 김남영(공 53)
- 김동산(법 59)
- 김명숙(농 58)
- 김문업(농 83)
- 김범수(문 61)
- 김병연(공 68)
- 김병완(공 58)
- 김상찬(문 65)
- 김석구(공 66)
- 김석홍(법 59)
- 김성건(공 56)
- 김성호(법 64)
- 김수향(간 68)
- 김순길(법 54)
- 김순자(치 57)
- 김영덕(법 58)
- 김영중(치 66)
- 김옥경(생 60)
- 김용태(문 61)
- 김원탁(공 65)
- 김원호(약 63)
- 김일영(의 65)
- 김은숙(미 62)
- 김정(치 59)
- 김정호(농 59)
- 김중범(상 64)
- 김중표(법 58)
- 김준일(공 62)
- 김재영(농 62)
- 김진식(공 66)
- 김창진(공 77)
- 김태환(문 70)
- 김희성(음 00)
- 김학철(의 55)
- 김희창(공 64)
- 니두섭(의 66)
- 노명호(공 61)
- 니승욱(문 59)
- 문경호(문 59)
- 문병길(문 61)
- 박명근(상 63)
- 박부강(사 64)
- 박상원(대 20)
- 박서규(법 56)
- 박영욱(사 55)
- 박용(문 89)
- 박우선(공 57)
- 박원준(공 53)
- 박은숙(미 62)
- 박인수(농 64)
- 박인창(농 65)
- 박임하(치 56)
- 박지경(생 60)
- 박점모(문 66)
- 박종수(수 58)
- 박찬호(농 63)
- 박창규(약 59)
- 박취서(약 60)
- 박호현(의 52)
- 박홍근(공 64)
- 박희자(음 68)
- 방명진(공 73)
- 배동원(공 65)
- 백승호(치 55)
- 백혜란(미 70)
- 벤자민 홍(문 53)
- 서동영(사 60)
- 서명희(농 67)
- 서세진(음 62)
- 서의원(공 66)
- 서치원(공 69)
- 성낙호(치 63)
- 성주경(상 68)
- 손기용(의 55)
- 손학식(공 61)
- 송명국(문 81)
- 신건호(법 53)
- 신동국(수 76)
- 신영찬(의 63)
- 신정연(미 61)

- 심재호(공 75)
- 양태준(상 56)
- 오윤표(음 56)
- 오선웅(의 63)
- 오찬수(약 57)
- 오형원(의 53)
- 윤희민(공 58)
- 위중민(공 64)
- 유석홍(상 61)
- 유영자(음 63)
- 유이중(농 74)
- 유준석(공 52)
- 육태식(의 61)
- 윤경민(법 55)
- 윤석철(상 60)
- 윤희성(치 65)
- 이강훈(치 65)
- 이건섭(치 54)
- 이건일(의 62)
- 이덕승(의 54)
- 이미정(의 78)
- 이방기(농 59)
- 이범모(치 74)
- 이범식(공 61)
- 이서희(법 70)
- 이성자(간 76)
- 이소희(의 61)
- 이영수(상 60)
- 이영환(간 70)
- 이용한(공 64)
- 이원익(문 73)
- 이원택(의 71)
- 이익삼(사 58)
- 이순길(법 54)
- 이재권(법 56)
- 이재룡(공 71)
- 이정근(사 60)
- 이정화(공 52)
- 이종모(간 69)
- 이준호(상 65)
- 이진영(의 65)
- 이창우(공 54)
- 이창신(법 57)
- 이재진(문 55)
- 이청광(상 61)
- 이혜영(공 56)
- 이호(음 92)
- 이호진(간 74)
- 이효표(의 58)
- 이희충(공 68)
- 임낙균(약 64)
- 임동규(미 57)
- 임동호(약 55)
- 임민준(상 58)
- 임재영(공 59)
- 임창희(공 73)
- 장근숙(간 73)
- 장기열(치 55)
- 장기창(공 56)
- 장난희(간 74)
- 장동석(문 66)
- 장대우(음 57)
- 장소현(미 65)
- 장원경(미 73)
- 장윤희(사 54)
- 장인숙(간 70)
- 전경배(의 69)
- 전낙관(사 60)
- 전원일(의 77)
- 전상욱(사 52)
- 전동주(생 72)
- 정병희(농 70)
- 정수만(의 66)
- 정예현(상 63)
- 정연웅(상 63)
- 정인환(법 54)
- 정재형
- 정진우(의 66)
- 정형민(문 71)
- 정혜령(간 72)
- 정황(공 64)
- 조경애(음 64)
- 조상하(치 64)
- 조상호(농 51)
- 조선주(간 69)
- 조재국(농 67)
- 주민희(음 51)
- 주정래(상 65)
- 지중근(농 56)
- 지중환(사 54)
- 최복철(공 70)
- 최영구(상 61)
- 성주경(상 68)
- 최영지(미 62)
- 최완원(공 57)
- 최종권(문 59)
- 최교훈(농 63)
- 한동수(의 60)
- 한성규(상 53)
- 한원민(의 59)

- 한정현(치 55)
- 한종철(치 62)
- 한홍택(공 60)
- 한호동(공 58)
- 한기웅(문 64)
- 홍병각(문 55)
- 홍선례(음 70)
- 홍선일(공 71)
- 홍수웅(의 59)
- 황헌홍(공 55)
- 황현상(의 55)

뉴욕

- 강교숙(간 73)
- 강에드워드(사 60)
- 계동휘(치 67)
- 고순환(간 69)
- 고애자(음 57)
- 곽노섭(문 45)
- 권영국(상 60)
- 권문웅(미 61)
- 권정덕(의 58)
- 김영천(약 72)
- 김광현(미 57)
- 김광호(의 66)
- 김기택(수 81)
- 김동환(약 60)
- 김문경(약 61)
- 김병권(문 63)
- 김복영(간 69)
- 김세환(공 65)
- 김승호(공 71)
- 김영길(문 62)
- 김영수(법 66)
- 김영숙(약 53)
- 김영철(의 55)
- 김영희(간 53)
- 김원주(의 54)
- 김용연(문 63)
- 김우영(상 60)
- 김욱현(의 59)
- 김유순(간 64)
- 김정희(약 56)
- 김정희(간 69)
- 김창수(약 64)
- 김창화(미 65)
- 김학자(간 59)
- 김현중(공 63)
- 리준무(음 65)
- 민익면(의 52)
- 민인기(의 67)
- 민준기(공 59)
- 박건이(공 60)
- 박종진(음 57)
- 박상원(음 69)
- 박수안(의 59)
- 박승화(간 69)
- 박재은(미 63)
- 박준재(의 63)
- 배상익(약 60)
- 배정희(사 54)
- 배조현(간 63)
- 서광(의 73)
- 서충선(사 57)
- 석창호(의 66)
- 김택수(의 57)
- 김상준(상 67)
- 이학은(약 57)
- 정상진(상 59)

- 이유성(사 57)
- 이정은(의 58)
- 이재덕(법 60)
- 이재진(의 59)
- 이태봉(의 56)
- 이태안(의 61)
- 이해청(약 62)
- 이해형(수 60)
- 이흥우(공 50)
- 전성진(사 54)
- 전병삼(약 54)
- 정동성(상 58)
- 정해민(법 55)
- 정화웅(사 61)
- 조남천(사 59)
- 조대형(공 61)
- 조득환(의 61)
- 조중수(공 64)
- 차국만(상 56)
- 차수만(약 71)
- 최수용(사 55)
- 최승웅(의 61)
- 최영태(문 67)
- 최정웅(미 63)
- 최한용(농 58)
- 최혁(음 72)
- 최형무(법 69)
- 한병용(약 71)
- 한승순(간 70)
- 허선형(의 58)
- 허영자(약 63)
- 허용웅(상 63)
- 허유선(생 83)
- 현건식(공 55)
- 홍정표(음 67)
- 홍중만(공 64)

뉴잉글랜드

- 곽노균(상 51)
- 김경일(공 58)
- 김기남(간 67)
- 김선혁(약 59)
- 김성근
- 김옥동(사 58)
- 김형범(문 57)
- 박영철(농 64)
- 박종진(의 56)
- 송미자(농 62)
- 윤영자(미 60)
- 윤상래(수 62)
- 이강원(공 66)
- 이규진(약 60)
- 이금하(문 69)
- 이은주(음 73)
- 이의인(공 68)
- 이영호(공 72)
- 장용복(공 58)
- 정선주(간 68)
- 정정욱(의 60)
- 조만연(상 58)
- 주창준(의 50)
- 최선희(문 69)

네바다

- 김영중(치 66)
- 김택수(의 57)
- 김상준(상 67)
- 이학은(약 57)
-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 남세현(공 67)
- 문성인(공 88)
- 변우진
- 성욱진(치 87)
- 송제진(치 78)
- 송창원(문 53)
- 이창재(문 51)
- 주한수(수 62)

미시간

- 고선희(문 63)
- 고광국(공 54)
- 김국희(공 56)
- 김우신(의 60)
- 김재석(의 61)
- 김정화(음 56)
- 김희주(의 62)
- 남성희(의 56)
- 남성화(문 55)
- 오동환(의 65)
- 윤효윤(의 63)
- 이민우(의 61)
- 이상길(의 65)
- 이재승(의 55)
- 조철(의 65)
- 이상근(공 56)
- 조영현(음 95)
- 주명순(간 64)
- 허계현(공 64)

한영신(생 86)

- 김윤희(간 72)
- 강재호(상 57)
- 강정수(문 61)
- 권오형(사 61)
- 김기덕(문 74)
- 김정희(법 56)
- 김현왕(공 64)
- 김희경(음 73)
- 남광순(음 64)
- 노상규(공 60)
- 민병덕(상 69)
- 박경용(약 63)
- 박서규(법 56)
- 박영훈(공 72)
- 박중성(법 53)
- 부영무(치 72)
- 손창순(공 69)
- 송영훈(상 57)
- 신규영(공 64)
- 안호삼(문 58)
- 오명주(간 77)
- 온기철(의 65)
- 위창호(의 67)
- 이상우(문 59)
- 이성원(공 65)
- 이성형(공 57)
- 이은수(사 64)
- 이장우(문 72)
- 이정남(공 63)
- 이창한(공 56)
- 이관모(공 55)
- 임승배(문 66)
- 임정란(문 76)
- 전병림(공 54)
- 정지선(상 58)
- 정준임(간 67)
- 권오근(상 58)
- 권정도(치 63)
- 권철수(의 68)
- 최경훈(법 56)
- 한상봉(수 67)
- 홍병익(공 68)
- 황동하(의 65)
-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 오계환(공 64)
- 윤진수(의 57)
- 이문상(공 62)
- 이영신(간 77)
- 이휘영(법 59)

시카고

- 강영국(수 67)
- 구경희(의 59)
- 구영미
- 김길준(의 59)
- 김갑중(의 57)
- 김규호(의 58)
- 김동희(공 66)
- 김병윤(문 65)
- 김사직(상 59)
- 김성일(공 68)
- 김승주(간 69)
- 김용환(공 71)
- 김정수(문 69)
- 김현주(문 61)
- 노영일(의 62)
- 림근식(문 57)
- 민영기(공 65)
- 박정일(의 61)
- 박창욱(공 56)
- 서상현(의 65)
- 소진문(치 58)
- 송재현(의 46)
- 신석균(문 54)
- 안신훈(문 61)
- 안영학(문 57)
- 안창현(의 55)
- 오명자(간 60)
- 유기정(간 72)
- 육길원(사 59)
- 윤경순(사 61)
- 윤덕상(치 62)
- 윤봉수(간 69)
- 이경미(미 69)
- 이덕수(문 58)
- 이동균(공 75)
- 이소희(간 68)
- 이상자(사 60)
- 이시영
- 이영섭(수 56)
- 이영우(문 66)
- 故 이윤모(농 57)
- 이종일(의 65)
- 이종일

- 임영신(의 56)
- 임현재(의 59)
- 장윤일(공 60)
- 전현일(농 62)
- 정승규(공 60)
- 정연학(공 63)
- 정은성(음 04)
- 조대형(공 57)
- 최대환(의 53)
- 최혜숙(의 53)
- 최희수(문 67)
- 한의일(공 62)
- 한재은(의 59)
- 홍청일(약 57)
- 황소나
- 황치룡(문 65)

알래스카

- 윤제중(농 55)

오레곤

- 계지영(문 60)
- 김영자(간)
- 박희진(농 78)
- 최용성(의 55)
- 한국남(공 57)
-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 김태웅(의 61)
- 명인재(자 75)
- 송용재(의 63)
- 유덕영(공 57)
- 이영준(의 62)

워싱턴DC

- 강길중(약 69)
- 고무환(법 57)
- 곽명수(문 65)
- 권오근(상 58)
- 권정도(치 63)
- 권철수(의 68)
- 김동훈(법 56)
- 김명자(법 52)
- 김병철(공 60)
- 김영란(사 58)
- 김용태(의 56)
- 김윤호(공 64)
- 김환철(치 88)
- 김해식(공 59)
- 김희주(의 62)
- 나연수(사 54)
- 남춘일(사 69)
- 박영태(상 63)
- 박영호(공 64)
- 박은희(미 68)
- 박인영(의 69)
- 박일영(문 59)
- 박홍우(문 61)
- 백승(법 58)
- 백용현(공 64)
- 서윤석(의 62)
- 서희열(의 57)
- 석규범(문 61)
- 양광수(공 73)
- 양동훈(공 52)
- 오인환(문 63)
- 우관해(음 63)
- 우재형(상 54)
- 원종민(약 57)
- 원달(의 61)
- 유영신(인 74)
- 유영준(의 70)
- 유영준(의 74)
- 유정식(수 60)
- 유한창(공 69)
- 유홍일(문 74)
- 이건형(수 54)
- 이규양(문 62)
- 이내원(사 58)
- 이서구(문 61)
- 이선구(문 65)
- 이성배(수 57)
- 이수안(공 54)
- 이연주(치 88)
- 이영덕(사 61)
- 이영목(공 59)
- 이윤주(상 63)
- 이재승(의 55)
- 이중국(의 52)
- 이준영(치 74)

- 이진상(공 57)
- 이철수(공 61)
- 이해청(약 62)
- 정원자(농 62)
- 조영희(문 66)
- 조화유(문 61)
- 천건희
- 최경수(문 54)
- 최동호(문 68)
- 최재귀(미 63)
- 최희수(문 60)
- 홍영석(공 58)
- 황보환(공 56)

워싱턴주

- 김옥영(문 52)
- 김인배(수 59)
- 김재호(상 54)
- 김재훈(공 72)
- 류성열(공 72)
- 민영기(공 65)
- 박진수(의 56)
- 변중혜(법 58)
- 안승적(농 59)
- 양용관(수 62)
- 윤석진(문 64)
- 윤태근(상 69)
- 이길승(상 57)
- 이명자(간 74)
- 이승윤(공 61)
- 이원섭(농 77)
- 이희백(의 55)
- 장대홍(공 65)
- 장석주(의 47)
- 장현길(공 60)
- 전병택(상 65)
- 정영자(사 56)
- 최준한(농 58)

유타

- 김인기(문 58)

조지아

- 김기준(공 61)
- 김영서(상 54)
- 김중구(수 73)
- 김학래(공 60)
- 김현희(간 59)
- 노한수(농 56)
- 서광모(공 65)
- 송용덕(의 57)
- 오경호(수 60)
- 이중석(의 54)
- 임수암(공 62)
- 임한웅(공 60)
- 정선휘(공 65)
- 한성수(의 54)

캐롤라이나

- 김기현(문 52)
- 마동일(의 57)
- 이종영(음 58)
-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 김기훈(상 56)
- 라찬국(의 57)
- 신경호(의 57)
- 최창승(의 52)
-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 이정화(의 61)

테네시

- 김경덕(공 75)
- 서갑식(공 70)

텍사스

- 김장환(공 81)
- 박영규(사 66)
- 박유미(약 62)
- 박태우(공 64)
- 송요한(문 73)
- 유항(농 56)
- 윤영주(문 60)
- 이석호(농 78)
- 전중희(공 56)
- 조진태(문 57)
- 진기주(상 60)
- 천양곡(의 63)

- 황명규(공 61)
- 플로리다
- 김동환(문 53)
- 김성준(의 55)
- 김중권(의 63)
- 박창익(농 64)
- 오석일(의 64)
- 임필순(의 54)
- 정의철(의 55)
- 조동건(공 69)
- 최준희(의 58)

필라델피아

- 강준철(사 59)
- 김국간(치 64)
- 김규하(상 63)
- 김순주(치 95)
- 김영우(공 55)
- 김정형(공 68)
- 김재술(약 58)
- 김진우(공 62)
- 김현영(수 58)
- 배성호(의 65)
- 서의원(공 66)
- 서준민(공 64)
- 성기호(상 59)
- 성정호(약 59)
- 손재욱(생 77)
- 송성균(공 50)
- 신선자(사 60)
- 신성식(공 56)
- 심영석(공 76)
- 안세현(의 62)
- 안철원(미 61)
- 오진석(치 56)
- 유영걸(의 70)
- 윤경숙(문 59)
- 윤경나(음 57)
- 이규호(공 56)
- 이만택(의 52)
- 이문호(공 53)
- 이상숙(생 74)
- 정덕준(상 63)
- 조영호(공 54)
- 조정현(수 58)
- 조화연(음 64)
- 주기목(수 68)
- 지재원(사 68)
- 지훈민(수 61)
- 진병학(의 57)
- 최종우(상 63)
- 최현태(문 62)
- 한동휘(문 57)
- 한웅우(대 70)

하와이

- 김달욱(사 45)
- 김용진(공 50)
- 박성재(상 57)
- 안은식(문 55)
- 이재환(수 61)
- 하인환(공 56)
-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 김경숙(가 70)
- 오태호(의 56)
- 이상강(의 70)
- 정민재(농 70)
- 최은관

휴스턴

- 김영일(의 55)
- 김중열(의 56)
- 박석규(간 59)
- 유한창(공 69)
- 이길영(문 59)
- 최관일(공 54)
- 최성호(문 58)
- 최용천(의 53)

룩키마운틴스

- 이경화(공 56)
- 전남민(사 72)

애리조나

- 진명규(공 7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uusa30@gmail.com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중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필(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홍선례(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a.org |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 부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eo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osophia@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SNU이음장학금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SNU이음장학금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2기 장학생들이 미국 방문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동문 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바로보기



SNU이음장학생 1기 이야기 (2022년 미국 방문)



SNU이음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 방문을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더 큰 꿈으로 나아가는 길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 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EUM23-01]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 정 금 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